



나성서부교회(담임 서건오 목사)가 마련한 촉감놀이 참여한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이 되면 나성서부교회(담임 서건오 목사) 주차장이 젊은 부모들로 갑자기 분주해진다. 영아를 둔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촉감놀이교실에 참여하기 위해서이다.

한 달에 한번 있는 촉감놀이 시간이 마냥 그림기만 한듯 4일 오전에 진행된 촉감놀이교실은 활기가 넘쳐났다. 이 촉감놀이교실을 진행하게 된 동기에 대해 서건오 담임목사

는 “영아를 둔 젊은 부부들은 한 시도 눈을 땔 수 없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주말에도 거의 쉬를 갖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주일예배 참석도 쉽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젊은 부부들을 어떻게

“친구야, 함께 놀자!”

나성서부교회 ‘촉감놀이교실’ 통해...하나님 사랑 전해요

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 촉감놀이를 착안하게 됐습니다”며 “매회 이 촉감놀이 시간이 되면 새로운 젊은 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같이 동참하는 가족들로 교회 영유아실이 붐비고 반가운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영아부실이 이렇게 아이들로 가득차면 하는 소망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촉감놀이 시간에는 1부 쌀튀밥, 2부 비트 시금치 울개니 물감 놀이, 3부 찹쌀놀이, 4부 버블놀이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 촉감놀이교실을 진행하고 있는 서하나 집사는 “생후 6개월에서 24개월까지는 오감 발달에 가장 기초가 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발달하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해당합니다”며 “자기 또래들과의 촉감놀이를 통해 첫 사회성을 체험하고 즐길수 있도록 해주

는 것이 촉감놀이교실의 목적입니다. 물론 촉감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요”라고 했다.

촉감놀이의 식재료는 주변에서 쉽게 접하고 먹을 수 있는 친근한 재료로 준비된다. 먹어도 안전한 과일이나 쌀가루, 야채즙 등으로 만든다. 아이들이 먹어도 전혀 거부감이 없는 식재료로 물감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것들을 직접 만지거나 입에 대보며 체험케 하는 것이 이 촉감놀이교실의 특징이다.

서 집사는 또 “이 촉감놀이교실에 참여하는 젊은 부모들과 가족들이 기대 이상으로 즐거워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줘 큰 보람을 느낍니다”며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문의: 323-939-7323

*주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이영인 기자



남가주교협이 광복 71주년을 기념하는 연합예배를 14일 세계아가페선교교회에서 드린다. 연합예배 준비위원들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강신권 목사)가 광복 71주년 기념 연합예배를 오는 14일(주일) 오후 4시 30분 세계아가페선교교회(933 S. Lake St. Los Angeles, CA 90006)에서 드린다.

이번 행사의 준비위원장 안기정 목사는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라고 소개한 후 “LA의 타 커뮤니티에도 광복의 의미를 전하고 한인들의 아름다운 예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남가주교협 광복 71주년 기념 연합예배

8월 14일(주일)
 오후 4시 30분

세계아가페선교교회

고 강조했다. 이 행사에서는 한인 차세대, 조국의 통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서도 마련된다.

이날 주최 측은 참석자들에게 태극기와 가방을 선물로 증정하며 저녁 식사도 제공한다.

또 작은 교회 80곳을 대상으로 총 1,600포의 사랑의 쌀도 배부할 계획이다.

김준형 기자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찾아라”

제2회 미주 목회자 사역 세미나...8월 20일(토) 열린다

제2회 미주 목회자 사역 세미나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란 주제 아래 오는 20일(토)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사랑의빛선교교회(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US체플린연구소와 불루 미니스트리(Bible Love Unity Edifying Ministry), ECA 한인연합회 등이 함께 준비하고 있다. 행사를 준비하는 김경렬 목사는 “교회 사이즈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그 자체에 집중하도록 하는

세미나”라고 소개했다.

오전에는 주강사들의 메시지가 진행된다. 김기섭 목사(LA사랑의교회 담임)는 “부목사는 소중한 사역이다”, 이승중 목사(어깨동무사역원 대표)는 “이민목회의 출구”란 제목으로 강의한다.

ECA 교단의 스킷 레미네이저 박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사 안수”란 제목으로 강의한다. 오후에는 선택 강의 시간이 있다. 먼저 조셉 최 대위가 미 육군 및 병원 원목 사역에 관해 강의한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2)[13면 참조]

“예수영생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재능캠프 엘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ivdream.com

Grace Mission University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ATS 정회원 승인

학위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교학 박사 (D.Miss) • 목회학 석사 (M.Div) •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 선교학 석사 (MA ICS) • 신학사 (BA)
특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 저렴한 교육비 • English Track • LA Extension Class • I-20 발급 •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 HD 시스템 온라인 강의 • 한인신학교 최초 “Live” 강의

LA 지역 입학설명회	
장소 및 시간	8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 1520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15 (Come Mission 국제본부 1층 강의실)
주요 순서	학위인가소개 학위과정소개 정부학자금 보조 소개 학생 비자 소개 온라인 입학원서 접수소개 샘플강의 소개 입학관련 질문과 답변
혜택	설명회 참가자에게 기념품 및 입학금면제 추천 및 Grace 장학금 지급 (해당자에 한함) 간단한 다과와 음료 준비

2016년 가을학기시작 : 2016년 8월 29일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찾아오시는길
 W Commonwealth Ave
 S Brookhurst Rd
 W Valencia Dr



제1기 미주 한인 사역자 영어 설교 클리닉이 대흥장로교회에서 4일간 이방석 목사를 강사로 열렸다.

“한인 사역자도 영어로 설교하자”

제1기 미주 한인 사역자 영어 설교 클리닉...300명 참여하며 깊은 관심

이방석 목사가 강의하는 Dr. Moses' English 목회자 과정 <제1기 미주 한인 사역자 영어 설교 클리닉>에 300여 명이 참석해 영어 설교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대흥장로교회(담임 권영국 목사) 본당이 가득찰 정도로 많은 목회자들이 2일~4일까지 매일 오전 8시~오후 4시까지 영어 문장을 따라하고 외우며 “미국과 선교지에 영어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을 불태웠다. 목회자 과정은 캐나

다의 한 독자가 15만 달러를 후원해 무료로 진행됐다. 한편 목회자 과정을 마친 후부터 이방석 목사는 평신도들을 위한 강의를 같은 장소에서 시작한다. 평신도들을 위한 강의는 8월 6일(토)~9월 2일(금)까지 4주간 진행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월요일 집중반, 토요일 집중반(300명)이 있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오후 4시까

지 열리는 주간반(500명)과 오후 6시~오후 10시까지 열리는 야간반(400명)이 있다. 강사 이방석 목사(Moses Lee)는 풀러신학교에서 Ph.D. 학위를 취득했으며 페이스루터란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를 역임했다. World Prayer Summit의 총재이기도 하다. 문의는 이방석 목사(678-822-8607, www.kingdomizers.org)이다.

김준형 기자



감사한인교회의 예배 모습.

“감사한인교회, 美 지방회로 소속 변경”

임마누엘장로교회·갈보리믿음교회 연합예배 드려

감사한인교회가 한인 지방총회에서 미국인 지방회로 이동하기 위한 임시 공동의회를 지난 7월 31일 실시해 투표자 901명 가운데 882명 찬성, 19명 반대로 97.89%의 동의를 얻었다고 8월 6일 발표했다. 이 교회는 미국 오순절주의 교단인 하나님의성회(Assemblies of God) 내 한인 지방총회인 ‘한국총회(Korean District Council)’ 소속이었으며 한국총회의 35년 역사가운데 정기총회도 세 번이나 열 정도로 총회 내에서 입지가 큰 교회였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김영길 목사도 2년 임기의 총회장을 두 번 지낸 바 있다. 김영길 목사는 “3년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더 늦기 전에 옮겨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언어 때문에 하나님 의성회 교단과 거의 단절된 상태로

지내고 있다. 어떤 교단보다도 더 성경 중심적이고 영적으로 건강한 우리 교단이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있어 가슴 아팠다”고 했다. 또 김 목사는 “우리 아이들이 장차 넓은 대양에서 자라날 것을 생각하면 벌써 가슴이 설렌다. 우리 어른들은 한국총회와 여전한 형제애를 나누며 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한인교회는 미국인 지방회인 남가주지방회(Southern California District)로 이전을 신청했다. 하나님의성회에는 총 67개의 지방총회 및 지방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인들을 위한 지방총회는 한국총회와 함께 한미총회(Second Korean District Council)가 있다. 이 교단은 한인 외에도 브라질인, 사모아인, 스페인어권 히스패닉을 위한 지방총회도 두고 있다. 김준형 기자

비영리단체 및 교회 회계 담당자 위한 퀵북(QuickBooks) 강좌



제임스 구 교수 GMU 행정처장

그동안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수차례 “비영리단체 및 교회 회계 담당자를 위한 퀵북(QuickBooks) 강좌”를 열어온 선교와목회를 위한정보센터가 LA에서도 강화를 연다. 장소는 LA컴미션 국제본부(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1층에서 개최한다. 이 강좌는 한인교회를 비롯한 비영리단체의 운영을 맡고 있는 지도자들의 회계 업무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퀵북 활용에 큰 도움을 줬다. 강의를 하게 될 제임스 구 교수는 현재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행정처장과 교회행정 및 IT 교수로 사역하고 있으며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다. 수강생들은 8월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4시간씩 총 8시간 수

업을 받는다. 오전반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반은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회계의 기본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과 함께 퀵북을 개인 랩탑 컴퓨터에 설치해 실습하므로 개인 랩탑을 준비해야 한다. 또 제임스 구 교수가 저술한 책 QuickBooks for Accountant를 준비해야 한다. 이 교재는 수강료 100불에 포함돼 있다. *문의: 714-393-4595 *이메일: icmm@churchhomepage.org

워싱턴트리니티연구원 교회 위한 인문학 세미나



심현찬 목사

워싱턴트리니티연구원(www.TrinityDC.net)이 ‘교회학을 위한 인문학-2: 인문학 고전과 의 데이트’를 9월 7일~11월 30일까지 총 12주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 30분까지 연다. 이 행사는 이 연구원이 연속으로 진행하는 트리니티 명품 신학세미나의 13번째 순서다. 강의는 원장 심현찬 목사가 맡는다. 그는 트리니티신학교, 맨체스터대학교에서 공부했으며 중앙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심 목사는 “현대는 인문학의 시대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성도와 목회자들이 인문학 고전들을 어떻게 읽고 분별하며, 동시에 신앙과 목회 현장에서 적용할 것인지를 모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 기간 동안 수강자들은 낸시 피어스의 <세이빙 다빈치>,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 플라톤의 <국가> 등을 함께 배우고 연구하게 된다. 세미나는 버지니아 주 애난데일 코너스톤교회(3901 Gallows Rd, Annandale, VA 22003)에서 열린다. 인터넷 전화 스카이프를 통해서 미주 전역에서 수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강 마감일은 8월 25일이며 수강 신청은 lloydshim@gmail.com 혹은 571-730-7825로 연락하면 된다. 수강료는 250달러.

제2회 미주 목회자 사역 세미나...8월 20일(토)

[1편으로부터 계속] 이서 카날레스 목사(처치 온 펄)는 다문화 사역 및 푸드뱅크 사역에 관해, 민승기 목사(OC교협회장)는 가정 목회 사역에 관해, 김영찬 목사(효사랑선교회 대표)는 교회의 실버 사역에 관해, 스테픈 파인스타인 소령은 군목 사역에 관해, 이준성 목사(ANC은누리교회)는 선교적 교회에 관해, 신상원 목사(미주합동신학대학원 교무처장)는 교회와 교단의 관계성에 관해, 성요셉 목

사(소망장로교회 담임)는 주일학교 사역에 관해 각각 강의한다. 또한 이희문 목사(LA기쁨의교회 담임)는 전도에 관해, 김송식 목사(SBC 교회개혁코디네이터)는 교회 개혁과 등록에 관해, 김경렬 목사(산타모니카한인교회 담임)는 캠퍼스 사역에 관해, 조진용 목사(리버사이드한우리교회 담임)는 1.5세 목사의 이민목회에 관해 각각 강의한다. 개최예배 설교는 과부환목사가

맡는다(한마음제자교회 담임). 이 세미나는 목회자들이 사역의 범위를 교회에만 한정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가정, 직장, 군대, 병원, 그 모든 곳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경렬 목사는 “사역자는 많지만 사역 범위가 좁아 열매를 얻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세미나 강의를 통해 시각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드몬트 대학교 학생모집

피드몬트 대학교는 [갑과을 그리고 병의 관계]를 대등하게 하여서 서로 협력하고 협력하여서 세상을 바꾸어 더 나은 세상[Better World]을 만드는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피드몬트 대학교는 정규 종합대학교로서 학문은 **통전, 통합, 통섭의 융합학문(consilience, 'A jumping together knowledge)**을 추구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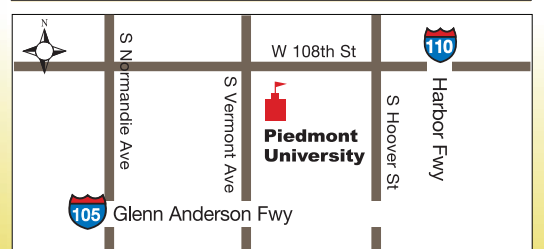
- 이사장 : Dr. Casey Kim, Ph.D.
 - 총 장 : Dr. William Stinde, Ph.D.
 - Contact : Christine Ji, Director (*카톡 또는 문자로 문의 가능합니다.)
- (714)357-0242**
lahope1004@gmail.com



*개강일 : 2016년 9월 6일

PU 학과별 학생모집(00명)

- MA Church Music (교회음악석사)
- MA Missiology (선교학석사)
- MS Oriental Medicine (한의학석사)
- Certificate Director Pre-school (유아교육 원장 자격증)



Piedmont University
www.piedmontuniversity.ac

1캠퍼스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424)257-8166

2캠퍼스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Tel:(323)777-5269



LAKMA 챔버 콰이어와 윤학원 코럴의 환상적인 연주가 디즈니홀을 가득 메운 청중들을 한껏 매료시켰다. ©전재룡

“디즈니홀을 감동으로 물들인 한국의 열”

LAKMA 챔버 콰이어와 한국 윤학원 코럴의 아름다운 만남

라크마(LAKMA) 챔버 콰이어(음악감독 윤임상 교수)가 한국의 대표적인 합창단인 윤학원 코럴을 초청, 5일 저녁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2016 한국의 열(The Spirit of Korea)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주회는 '만남과 소통'이라는 4가지의 주제로 진행됐다. 고국과 이민자들, 한민족과 타민족, 동양과 서양음악, 그리고 1세와 2세의 만남과 소통의 통로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올해로 5회째 열린 이 연주회는 윤학원 지휘자가 이끄는 '윤학원 코랄'이 다민족 합창단 'LAKMA 챔버 콰이어와 함께 각각의 합창 음

악을 선보이고 또 함께 부르는 콜라보레이션 무대로 피날레를 장식하며 이곳 LA 한인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했다.

이날 콘서트에서 공연된 곡들은 모두 한인 작곡가들이 직접 작곡했다. 그래서인지 한민족의 열이 그대로 입입된 멜로디는 콘서트홀을 가득 메운 1,500여 명에 가까운 청중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또한 일반 클래식 콘서트 형태의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무대 하나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대로 꾸며져 음악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귀한 시간을 제공했다.

특히 두 합창단의 콜라보레

이션 무대에서 선보인 작품은 백낙금씨가 지난해 LA 매스터 코탈에서 위촉 받아 연주했던 '승계(Succession)'이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승계 내용(역대하 2장)을 토대로 한 작품이다. 이민 1세와 2세 간의 갈등과 해결과정을 음악적 전개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해 음악계의 극찬을 받은 곡이다.

한편 LAKMA(Los Angeles Korean-American Musicians' Association)는 2012년 1월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이 만든 비영리 단체이다.

*문의: 213-235-8972

이영인 기자

“조국이 그리운 <덕혜옹주>”

그리스도인인 당신에게...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나라를 잃고 일본으로 끌려가 노역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향해 덕혜옹주는 나지막이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비록 역눌려 있으나 반드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도 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보다 조국이 그리웠던, 나아왔던 마지막 황녀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영화 <덕혜옹주>는 고종의 딸로 태어나 일본에서 생의 대부분을 보낸 비운의 황녀, 이덕혜(손예진 역)의 삶을 그린다. 만년의 고종은 기우는 국운의 슬픔을 어린 덕혜를 보며 달랬지만, 이내 운명을 달리하고 만다. 덕혜의 삶에도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끝내 그녀는 나이 만 13세가 되던 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이복남매인 영친왕과 함께 일본에 머물게 된 덕혜옹주. 이때부터는 그녀는 조선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리운 어머니(귀인 양씨)가 있는 곳,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는 조국은, 그 뿌리를 자르려는 일본의 압제 속에서도 그녀를 지탱했던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다.

이 영화는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보탠 이른바 '픽션'(faction)이다. 덕혜옹주가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갔고, 그곳에서 일본인 소다케유키와 결혼했으며, 정신병을 앓기까지 했다는 것. 그러다 해방 후 1962년 비로소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창덕궁 낙선재에서 지내다 1989년 세상을 떠났다는 것 정도가 이미 알려진 덕혜옹주의 삶이다. 그러나 그녀가 일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그야말로 상

상력에 맡겨야 하는데, 영화는 그것을 '그리움'과 '책임감'으로 풀어낸 듯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영화에서 자주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고향에 둔 어머니가 사무치도록 보고 싶은 딸이자, 한 나라의 '마지막 자존심'인 옹주라는 그녀의 신분이 이처럼 복합적인 까닭이다. 독립운동을 했던 김장한(박해일 역)에게 "힘이 되지 못해 미안하다"던 그녀의 뒷모습이 그토록 가여웠던 것도 또한 그래서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많은 이들이 그녀의 존재를 점점 잊어갔다는 점, 바로 이것이 영화 속 덕혜옹주를 더욱 가련하게 만들고, 이는 마치 힘없던 그 때의 조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와 나'의 모습과도 같아서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한다.

덕혜옹주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녀'였으나 '들을 빼앗은' 나라에서 그 누구보다 애처로운 삶을 살았다. 만약 그녀가 일본에 순응하고 좁지 않은, 넓은 문을 택했다면 그나마 일본에게서 명목상 왕족으로서의 삶은 보장(물론 끝까지 그랬을 거라 짐작할 수 없지만)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영화 속 덕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져야 할 짐은 고스란히 그녀의 몫이었다.

우리는 알고 있다. 돌아가야 할 곳과,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러나 그 대가가 어떠한지라는 것 역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제 다시 그리워하자. 다시 책임감을 갖자. 혹여 자신이 나아하다 느낀다면, 부디 영화 속 덕혜옹주의 이 한 마디를 기억하자. 실사 다른 많은 이들이 당신과 그의 나라를 잊을지라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김진영 기자



영화 <덕혜옹주> 촬영진. ©영화사

“디아스포라여 일어나라!”

2016 햇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권혁빈 목사, 김춘근 교수 등도 강사로 참여



이형자 이사장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2016 햇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가 다가 오는 13일(토)~14일(주일) 저녁 서울 세종대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176개국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비롯해 국내외 성도들을 대상으로 3,000여 명을 초청한다.

강사로 는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이형자 이사장을 비롯해, 최순

영 장로, 김상복 목사, 김승욱 목사, 서영희 목사, 김춘근 장로, 권혁빈 목사 등이 초청돼 세미나를 인도한다.

한편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은 지난 2011년과 2014년, 그리고 2015년 전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모아 그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자신이 낳고 자란 곳에서 선교사적 삶을 사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 햇불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를 개최했다. 이는 디아스포라를 통한 세계복음화라는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작이 됐으며, 한국교회에 디아스포라를 선교 자원

화하려는 움직임의 빔장을 열어주는 계기 됐다. 이 대회는 하나님께서 왜 세계 각처에 한인디아스포라교회를 부르시고 존재케 하셨는지 신앙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대회가 될 것이다.

*등록방법: 웹사이트 참조

QR코드 이용

*등록비: 2만원

*장소: 세종대학교 대양홀

*주최: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문의: 전화)82-2-570-7067

이메일:

diaspora2016@torchcenter.org

*웹사이트:

www.diaspora.co.kr

이벤트는 무슨 차로 할까? 요즘 스타일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자동차 구입할까? 리스 할까? 내가 용자가 될까? 안일 해결을 한 달에 나눠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HAS SCIENCE BURIED GOD?

과학이 하나님을 매장했는가?

FRI, SEP 09
7:00 PM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213-487-5437 | E-mail: events@nca.org

Guest Speaker: Dr. Hugh Ross Organization: Reasons to Believe (reasons.org) Sponsored by NEW COVENANT ACADEMY

GSM세계선교대회 및 가족수양회

선교사 1천명, 후원자 2천명 위한 전략적 네트워크 강화



황선규 목사
GSM한국목자선교회 대표

전 세계 650여 선교지를 지원하는 GSM선한목자선교회(대표 황선규 목사, Good Shepherd Mission, 이하 GSM)가 지난 7월 31일~8월 9일까지 시백 컨퍼런스 센터에서 제4회 세계선교대회 및 선교사 가족수양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계선교대회는 전세계에 파송돼 있는 GSM 선교사들과 가족, 후방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세계 선교의 현황과 사역의 발전 방안을 나누는 시간으로, 참석 선교사들에게 선교지 복음화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선교 방향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됐다. 황선규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GSM을 통해 선교사들이 긴밀히 교류하고 선교를 위한 전략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2010년까지 선교사 1천명과 후원자 2천명이 함께 동역하는 선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GSM 선교회는 1대 1 동역 선교를 통해 ‘100달러가 꼭 필요한 선교지’와 후원자를 연결시켜 주는 초교파 선교단체로 현재 71개

선교국의 선교사들을 매달 섬기며 동역하는 탄탄한 선교단체가 됐다. GSM은 선교 일선의 선교사와 후방의 후원자를 1대 1로 연결하며 특히 후원금 100%를 선교사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후원자들과 세계 선교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황 목사는 “1대 1 동역 선교는 이 시대 복음 전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선교의 지혜”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GSM은 더욱 확고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십자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동역자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브라이언 기자

오네시모의 독백

김영언 저



30염마오로 간 글로바(Cleopas)

Cleopas.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글로바를 잊을수 없다. 골로새의 은인 글로바. 예수의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목수요셉의 동생 글로바는 아내 마리아와 함께 노년을 이곳 골로새에서 보냈다. 골로새교회는 사도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았음에도 나를 통해 편지를 전달하여 격려할 정도로(저자주-로새서 4장9절) 중요한 교회가 되었고 에바브라와 빌레몬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하였다. 그가운데에서도 글로바는 조용한 섬김으로 이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었다.

나는 오늘 마음이 뜨거운가.

31. 라오디게아의 늪바와 재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고 있다. 네로 시절보다 더하다. 황제는 예수의 마지막 남은 직계제자 노사도 요한을 에베소에서 추방하여 에게해 연안 남서편의 밧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다. 강제노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돌아온 사도는 놀라운 책을 적어 교회들에 회람을 부탁하였다. 천국과 심판에 대한 예언이 담긴 묵시록. 그 책 앞부분에 에베소 인근의 7개 교회를 직접 지명하며 예수가 전하는 훈계와 예언이 적혀 있다. 에베소로부터 시작한 예언은 라오디게아(Laodicea)에서 멈춘다. 골로새는 거기에 없다.

의사 누가가 예수의 복음서 마지막 장에(저자주-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 마가와 달리(저자주-마가복음 16장 12절 참조) 글로바의 이름을 넣어준 것이 너무 반갑고 고맙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이 세상을 떠난 뒤, 동생 가정을 맡았어 후원하였던 글로바와 마리아. 예수의 직계 친척이었지만 교회가 커지는 지난 삼십여 년 동안, 요셉의 이름이 그러하듯, 이상하게도 관심밖으로 사라져가던 이름이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던 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끝까지 자리를 지킨(저자주-요한복음 19장 25절) 아내 마리아와 달리 글로바는 다음 날인 안식일까지 절망가운데 두문불출하였다. 그 다음날 새벽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여자들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그는 허탈한 심정으로 예루살렘 서쪽 10킬로 떨어진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다. 오후 햇빛이 서쪽을 향하는 그의 눈을 부시게 할 무렵 부활한 예수가 나타났다. 동행 중 대화하며 저녁을 같이 한 일은 글로바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었다. 부활하여 자신에게 나타나 성경을 풀어주었던 예수는 더 이상 그의 조카가 아니라 진정으로 신이 된 것이다.

예수를 눈으로 보고 음성을 들었던 한 세대 전 제자들이 부러워한 적이 있다. 나같으면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5천 명을 먹인 기적을 직접 보았다면 예수를 영원히 따라다녔을 텐데 하며. 그리고 예수가 사흘만에 부활한다고 살아생전 그토록 예고하였거늘 어쩌면 그렇게 한사람도 믿지 않았던지 의아해하기도 했다. 그런데 글로바가 골로새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수의 행적을 알고 본게 구원을 주는게 아니라고.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후 비로소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나는 어떨까. 성령은 내게도 임하였는가. <계속>

2016복음화대회...강사 이순창 목사 초청



이순창 목사
서울연신교회 담임

에틀렌타 한인교회 협의회(회장 정윤영 목사, 이하 교협)의 복음화대회 1차 준비 기도 모임이 지난 3일 오전 새한장로교회(담임 송상철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정윤영 회장은 “이 시대는 영적으로 상당히 어

둡고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복음화 대회를 앞두고 에틀렌타 모든 교회들의 연합과 적극적인 기도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올해 복음화대회는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목사를 강사로 초청 ‘빛의 감옷을 입자’(롬 13:12)라는 주제로 열린다. 서부지역(마리에타)은 오는 10월 5일(수)~6일(목)까지 베다니장로교회(담임 최병호 목사)에서, 동부지역(귀넷)은 10월 7일(금)~9일(주일)

까지 아틀란타한인교회(담임 김세환 목사)에서 각각 열린다. 또, 8일(토) 오전 10시에는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된다. 이순창 목사는 영남신대와 장신대 신대원을 거쳐 서강대 대학원과 명지대 대학원, 맥코믹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10월부터 연신교회 담임을 맡고 있으며 경안여중 동산여전산고교 교목 역임, 총회 부서기와 서기, 평복노회장 등을 역임했다. 윤수영 기자

“아틀란타한인교회...시니어 여름성경학교”



아틀란타 한인교회 시니어 대상 여름성경학교.

아틀란타한인교회(담임 김세환 목사)가 65세 이상 연장자를 대상으로 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여름성경학교’를 2일~4일까지 진행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에는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여전히 결실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는 ‘백세시대의 인생설계’로 은퇴 재정 세미나, 스마트폰 사용법, 노래 교실 외에도 안과, 산부인과, 한의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와 진료상담이 제공됐다. 이 밖에 시니어들을 위한 미용 봉사도 실시됐으며 오후 시간에는 탁구교실 등이 진행됐다. 김세환 목사는 “배움에는 끝이 없으며 배움은 항상 사람을 빛나게 한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을 배우고 상식과 지식을 익히고 건강한 자신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어르신들을 축복하고 환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윤수영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이원성,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미성대학교 2016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총장:류종길 박사, 이사장:김광렬 박사

(모집마감 : 8월 24일 / 개강 : 8월 29일)



모집과정

본교는 CA 주정부교육국과 연방정부교육부인준 ABHE에서 정식인가를 받아 학위를 수여함

신학부: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선교학석사(MAICS), 목회학박사(D.Min.)
경영학부:경영학과(B.A.), 경영학석사(MBA)
상담학부:상담학석사(M.A.C.), 상담학박사(D.C.)

입학지원

- 1. 입학서류: 본교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aeu.edu)
- 2. 전형방법: 1)서류심사 2)면접(장학생선발)
- 3. 신청마감: 2016년 8월 24일(수)

입학관련문의

Tel: (323)643-0301 / E-Mail: admission@aeu.edu(담당: Jin Lee)

미성대학교의특징

- ABHE 정회원/서울신학대학교 MOU 체결(교수, 학생, 학점 등 전과정 협약)
- 전 과목 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강의
- 한국과 미국 또는 전 세계에서 수강가능(온라인강의)
- 국내외 유수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뛰어난 교수진

특전

- 모든 과정 1-20 발급, 졸업후 전과정 OPT 가능
- 저렴한 학비, 월 Payment로 낮은 부담
- 연방정부 장학금(Grant) 및 융자(Loan)가능(영주권 또는 시민권학생)
- 성적과 자격에 따른 다양한 장학금(11종)



T. 323-643-0301, F. 323-643-0302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Email : info@aeu.edu

공력의 심판날에

고린도전서 3:10-15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 심판 날에 나타날 공력-말겨진 소임에 충실!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와서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 회개하고 거듭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인치심으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보증을 하시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더 많은 영혼이 들어가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는 영적제질 신앙을 가꾸는 곳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교회였고 성령님이 실망하시는 교회였습니다. 파당을 지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폐단이 있었다는 것은 교회의 망조입니다.

고린도전서3:1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말씀은 3장 편지 모두에 전제하는 서술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보는 사도바울의 시각은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제질 신앙이 아니라 육에 속한 상태로 아직도 죄인 그대로 교회만 들락거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하늘나라 들어갈 사람 더 많이 구원 얻도록 애쓰지 아니하고 자기 실 자리 만들고 행세할 수 있는 자리 만들며, 교회분위기를 자기 좌지우지 하려고 하다 보니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교회 안에서 영향력 행사하기를 목적으로 돈도 뿌리고 선물도 사주고 자기 파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휩쓸리는 영혼도 천국가기 참으로 어렵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골적으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너희 믿음이 신령한 믿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상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대함같이 하노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로 취급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찢으로 먹이고 밤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고전3:2)고 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고전3:3)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곧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는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이처럼 파당을 짓는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나 바울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씨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 위에 아볼로는 물을 주면서 빨리 생

명의 씨이 나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가꾸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씨이 나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온전히 성령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은 지옥 갈 영혼이 천국가기 위한 목적 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되 깊게 알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 분과 연합해서 그 분의 나라 하늘나라 성령으로 인도받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당회장이고 목사라 해도 여러 분과 예수님사이에 중매장이 역할 외엔 없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을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된 예수께 중매하는 중매장이라 했습니다. 중매는 신랑감 신부감 사이에 서로를 이해하도록 소개시키고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여러 가지로 기대가 넘쳐서 부부가 되어 짝을 이루고 가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중매장이 그 중간에 계속 끼어있다면 도움이 안 되고 웨방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목자에게 데려다 맡기신 것은 목자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영적 표현으로 영원한 신랑 되실 예수님께 중매 서라고 목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수준급 이상으로 성숙되게 되면 목자가 없어도 자기 혼자 기도, 봉사, 전도, 구제도 하고 자기가 모신 예수님을 아주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자랑도 하고 증거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중매자들은 죄인이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과 연합했으면 옆에 물러나 있으면서 그 구원 얻은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 마음에 들고 예수님 기대가 새로워져서 더 알뜰한 관심으로 세밀히 보살펴주시고 예수님나라에 더 요긴하게 쓰임 받도록 옆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들과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찌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을 불러내시어 목자에게 책임 지워 맡기신 것입니다. 이 영혼을 진리를 깨닫게 하고 성령으로 회개하며 거듭나게 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된 결실로 하늘나라 들어보내야 한다는 사명에 책임을 지워 맡기신 것입니다.

2. 심판 날에 나타날 공력-그리스도의 심장소유!

이 책임 목회라는 중심에는 그리스도 심장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목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애를 쓰며 가르쳐도 세상 떠날 때 하늘나라 들어간 사람도 보기도 하지만 못 들어간 사람도 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은 왜 그런지 하나님은 구분

을 지어 말씀합니다. 디모데 전서 3:15에 보면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위에 세워진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할 때 예수님 터 위에다 자기 믿음을 가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13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합니다. 공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힘들고 공들여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불에 타지 아니할 보석이 있고 불에 금방 타버리고 재가 되어 금방 흩어지고 말 나무, 풀, 짚으로 세우는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 아니고 중간 심판 때에 받게 되는 것인데 그날에 나무나 풀, 짚처럼 활활 타버리고 재는 바람에 흩어지고 나면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헛수고한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아무리 불로 태워도 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원불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분이요 변치 않으시는 분이요 한량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자 하는 것은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영원불변 무한한 존재로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자기 믿음의 공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살

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 생활 시작해서 예수님 품에 들어갈 그 때까지 영원불변한 공적을 쌓았어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때에 공력이 계속 빛나는 내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기는 믿었고 회개도 했고 구원도 얻었다고 하지만 그 인생이 공력을 쌓는데 나무나 풀이나 짚 같은 것으로 대충했고 생활은 다른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체면을 위해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고 교인들과의 교제도 적당히 하면서 우리나라가 망조가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1992년도부터 이단들이 시한부종말론을 가지고 못된 짓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열성인 사람들을 이끌어 내서 재산을 다 기증하게 하고 납의 재산을 수탈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말들이 예수님을 믿되 부담없이 적당하게 믿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 때부터 한국교회는 내리막길로 갔습니다. 부담없이 적당하게 교회 생활했다는 것은 풀이나 짚으로 쌓은 공적과 같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결부시키고 자기 수고의 목적은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자력으로 주님 맞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보면 자신이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들을 잘 감당하십시오.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의 하나 되심을 따라 자기 공력을 타 없어질 것이 아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공적 쌓기를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언제일지 모를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영원불변의 공적 쌓기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사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GATEWAY SEMINARY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게이트웨이 신학대학 CLD 본교



- See the Bible as One Moving Picture! Eat the Small Scroll and Witness the Gospel of Jesus Christ! Do His Ministry of the Holy Spirit as Moses, Elijah, and Apostles in His Time!
- Self-sustaining, self-mobilization, self-governing, self-theologizing, self-missiologying, self-Christcentering, and self-Christactualizing in Christ

COURSE STUDY FOR FALL 2016 (2016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한국어 트랙, 12주 과정 Korean Track, 12 Weeks Course	Adjunct Professor	Reference 한국교재 사용으로 이중 언어 효과 큼
CLS 1114 구약 개론 Old Testament Survey, Tue and Thur. 화요일, 목요일 6:15pm~9:55pm	Dr. John Shin	성경을 한쪽의 역동하는 그림으로 보게 되며 대 부흥 운동을 경험한다! 성경 안에서 구약을 통해 신약을 보고, 성령으로 구약을 알면 신약이 밝게 열린다!!!

*수료증 제자반 : 별도 수시 접수

- Vice President, Dr. Michael Martin
- National CLD Director, Dr. Warren Haynes
- CLD LA, LBH Zion Theological School (E9)
- Director, Dr. John Shin
- Telephone T(818)421-4520, jshinglobalms@hotmail.com
- Registrar, Nant Khambounheuang 562/242-6015
- LA Campus : 3041 N. Peck Rd., El Monte, CA 91731
- Long Beach Campus : 3435 San Anselme Ave., Long Beach, CA 90808
- Lakewood Campus : 11844 E. Ceniralia St. Lakewood CA 90715

The Last Date of Registration: Aug 29, 2016!!!

Shaping effective Christian leaders for the churches of tomorrow

HAVE GREAT VISION OF GOD AND BE GLOBAL!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만민을 품어라!

Our Christian Leaders School Invites the Dedicated Christian Leaders for Today and Tomorrow!

- Triple-Language Tracks** : English, Spanish, Korean
- Diploma Degree** : Ministry, Theology, Church Planting, Women's Leadership
- Opportunity** : Upon completion of program, students graduate and receive Diploma degree GGBTS and are GGBTS alumni : More than eleven mission ministry opportunities are opened to individual his or her qualification.
- COUNSELING FOR CHURCH LEADERS IN MINISTRY OF THE HOLY SPIRIT** The course covers forty three essential subjects or areas in 21st century including an additional emphasis on doing His "Spirit-filled Counseling Ministry."
-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of Christian Theology surveying the Person of Christ and His Work, Person of the Holy Spirit and his work Salvation the Church and Her Work, and the Last Things and Preparation for the Second Coming including an additional focus on the ethical implications of Christian thought and practic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토브 성경 연구

Tov Bible Study



강신권 목사

- 히브리식 사고 : 3통 사고
- 히브리식 체현 : 5특체현으로 성경 원전 해석
- 현재 : 요한계시록 특강(매주 수요일 7:30pm)
- 강사 : 강신권 목사
- 장소 : WBPC 세계성경장로교회

Tel(562)761-5242
Tel(213)739-0403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 조각글

운전실력이 목회 실력



이정근 목사
성결교회 원로

교회에서 자동차 운전 세미나를 연 적이 있었다. 생활교육의 하나였다. 이민 1세대들에게는 자동차 운전이 성공적 이민생활의 필수요건이었다. 미국이민생활의 첫 걸음은 누구나 운전면허를 얻는 것 아닌가. 교통사고 때문에 이민생활이 앞은 뱅이 걸음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지 않던가. 이민생활을 시작할 때 영어를 써야 하는 언어충격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운전충격일 것 같다.

“기독교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비교하면 신자들의 사고나 티켓이 훨씬 적습니다. 술이나 마약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고요, 마음이 차분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특히 출발하기 전에 운전대 붙잡고 기도하면 사고가 훨씬 줄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모시는 운전기사라는 의식이 교통사고를 현저히 줄여 줍니다. 가장 귀한 손님을 모셨기에 조심에 조심을 하게 되거든요. 게다가 특히 배우겠다는 의식이 강하니까 운전 기술이 매일 매일 늘어갑니다.”

교회에서 장로직분으로 섬기는 운전학교 교장선생님의 강의 서론이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운전자들은 벌써 사고방지에 몇 점을 따고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보험회사의 통계이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도 했다.

“이정근 목사님도 틀림없이 완벽

운전자이실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지요. 술과 마약은 절대 금기이지요. 성격도 차분하시지요. 또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욕이 강하시거든요.”

그런 찬사를 할 때 필자는 얼굴이 상당히 화끈거렸다. B 클래스 면허 소지자로 교회 밴드 몰고 다녔지만 티켓 돌을 받은 일로 보험료가 다소 올랐던 때였다. 그 때부터 내 머릿속에는 ‘운전실력이 바로 목회실력’이라는 의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 이후 지금까지 내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나거나 위반 딱지를 받은 일은 없었다. 그리고 거친 운전자들이 많고 횡포가 심했지만 한국에서도 차를 몰고 전국을 썰성 돌아다니기도 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운전실력이 목회실력이다. 우선 사고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운전과 목회는 똑같다. 그리고 사고가 났다 하면 인명

사고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운전자는 옆거울도 보고 뒷거울도 보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앞을 향하여 하는 것처럼 목회도 되도록 많은 시간을 목표지향적인 일에 쏟아야 한다. 운전자는 손님을 싣고 최단거리를 최소의 시간으로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는 것처럼 목회도 하늘나라 입구까지 안착하도록 최소의 노력 최대의 효과 곧 열매를 맺어야 한다. 가끔 자동차의 작은 부품 하나가 고장이면 차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목회도 마찬가지이다. 뱃속 아기부터 시신 입관까지 하나 하나가 완벽하도록 점검하고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꼭 잊지 말 일도 있다. 자동차는 충돌했다 하면 그 잘못이 누구이든 결국 손해를 보게 된다. 부딪치면 결국 손해가 크다는 점에서는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신다면 운전생활은 어떠셨을까? 물론 오늘날에도 노련한 운전사이셨으리라. 이미 아끼시절 엄마와 함께 나귀를 타시고 이집트까지 먼 여행을 하셨으며 뉘넝절(유월절) 큰 행사 때에는 새끼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휘휘 돌아다니셨으니 말이다. 그 때 나귀의 발에 누군가가 밟혔다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 다문화선교(8)

다문화 목회와 사회적 거리감

21세기의 특징은 “국민국가 중심의 체계”가 붕괴되면서 새롭게 “글로벌리즘”, “신자유주의”의 대변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교통수단의 발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세계는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가 가속화되어 더 이상 문화가 어느 한 지역, 사회, 집단이라는 공간에 묶여 있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종적, 문화적 배경이 매우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사회적 거리감”일 것이다. “사회적 거리감”이란 다양한 사회 인구집단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이나 주관적 느낌 혹은 이미지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감은 인간의 감정으로부터 시작되며 한 개인 혹은 사회 전체가 특별한 대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의를 느끼는 현상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그렇다. 다양한 민족, 인종, 사회 구성원 사이에는 “사회적 거리감”이 존재한다.

얼마 전 한국교회 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감”에 관하여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 설문 조사에 의하면 교회가 다문화 이주민과 이주민 집단을 지원하는 것을 “찬성한다” 응답한 사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람은 78.8%에 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주민들이 한국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한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76.1%에 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은 “사회적 거리감”이 선진국 출신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때보다 다른 소수인종을 받아들이는 때 평균 10% 이상이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아직도 교회와 우리 사회 속에서는 특정대상을 향한 “사회적 거리감”과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다문화 선교와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 내 아직도 존재하는 “사회적 거리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이다. 교회 내 “사회적 거리감”은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다문화 선교와 목회에 있어 아주 큰 장애물이 되는 것

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교회 내 “사회적 거리감”은 교회 내 이주민들을 수용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교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소수민족들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함께 다문화 목회와 선교의 중요성에 관하여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이주민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들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문화와 피부가 다르고 언어와 종교가 다르기에 그들은 영원한 우리의 적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도저히 함께 명을 뉘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서 누구도 상대하기 원치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사랑을 나눠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이와 같이 교회와 성도 모두도 선행해야 할 교육과 인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며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일 것이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함께 교제해 보자. 그러한 작은 실천이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동준 목사
얼바인아름다운교회

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그러면 먼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할까? 첫째,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을 두려워했듯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같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은 아름다운 생각이며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생각이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두려

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둘째 죄를 지으면 반드시 보응받을 깨닫는 마음이다. 죄를 지으면 죄의 보응이 있음을 기억해야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고 죽어야 할 인생에서 다시 사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래와 종말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강도는 현실적인 생각, 십자가의 죽음만 생각한 것이 아니다. 죽음 후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생각했다. 이것이 구원받는 강도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중요한 계기이다. 이것이 운명을 바꾼 아름다운 생각이다. 올바른 생각이다.

그럼으로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보다 내일을 생각해야 한다. 육적인 것보다 영원한 나라,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생각해야 한다. 순간적인 만족보다 영원한 기쁨을 사모해야 한다.

세상을 살다보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때가 많다. 그것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함께 있던 두 강도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다.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강도는 똑같이 죽을 죄를 지었지만 각각 생각이 달랐다. 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생각을 가졌지만 다른 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똑같은 환경에서 한 사람은 구원받은 승리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실패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강도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

Director of Children's Ministries

Beautiful Church
Rowland Heights, California, United States

Position: Children's Pastor
Denomination: Baptist-SBC
Job Type: Full Time

Job Description:

Qualifications

Education and Experience:

- * Bachelor's degree in Children's Ministry or a related field is required;
- * Work experience in a church-based children's ministry utilizing volunteers is required;

Faith and Life:

- * Must be called by God to minister to children and preschoolers;
- * Must have a growing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 * Must be in agreement with the Purpose Statement, Core Values, statements of faith, Constitution, By-Laws and general vision of Beautiful Church;
- * Must be willing to become a member of Beautiful Church;
- * Must pass the church's criminal background check process to the satisfaction of the Senior Pastor;

Ministry Skills:

- * Servant attitude towards God, leaders, other team members, the church, and guests;
 - * Self-motivated with a team approach including the ability to motivate volunteers;
 - * Competent in leadership abilities to include organization, delegation, administr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 Proven ability to work well with parents, volunteers, church staff and children;
 - * Effective oral and written communication skills;
 - * Strong decision making skills;
 - * Demonstrated ability to recruit and coordinate volunteers;
- Please submit a résumé, statement of faith and/or personal testimony, a recent sermon video clip or web link, and ministry 3 references.

Contact: Sarah Park

beautifulchurch@hotmail.com / (626) 810-3455

Beautiful Church

1717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www.beautifulchurch.or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7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담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201]313-0899 725 Grand Ave #305 Ridgefield, NJ 07857

플러싱 지사 [718]928-3333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로스엔젤레스 지사 [213]739-2222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토론토 지사 [647]686-6000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서울 지사 [02]739-0890 Doosan We've 58 #1238 Jongno-gu, Seoul

여행설계사 데이비드 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노동절 특선 345!

‘하늘에서 즐기는 세계 7대 자연비경, 레인보우 브릿지’

레인보우브릿지 & 호스슈밴드

캐넌/파벨호수(크루즈)/엔텔로프 캐년/호스슈밴드 (\$150 상당 경비행기 포함)

▶출발: 9월3일 (토)

3일 \$345

‘마운트 위트니의 위트니포탈, 모로베이를 함께보다!’

요세미티 & 타이오가 패스

위트니 포탈 / 비숍 / 타이오가패스 / 요세미티/프레즈노/모로베이(카약)

▶출발: 9월3일 (토)

3일 \$345

‘서부해안 최고의 숨겨진 명소 빅서! 이제 함께 떠나요’

빅서/피나클스 국립공원

산타버바라 / 빅서 / 카멜사이트 / 레드우드(기차) / 피나클스 국립공원 / 파소르블레스(와이너리)

▶출발: 9월3일 (토)

3일 \$345

‘기차, 온천크리고 와이너리 낭만과 여유를 즐기세요’

샌디에고 기차여행

샌디에고(기차) / 샌디에고 올드타운 / 라호야(쇼핑) / 샌디에고내항(크루즈) / 줄리안/엘림 핫 스프링(온천) / 캘리포니아 랜치(와이너리)

▶출발: 9월3일 (토)

3일 \$345

푸른투어에서만 가능한 나이아가라 흥빠졌기

나이아가라/토론토 4일

① 나이아가라폭포 도보거리의 호텔숙박
 ② 스카이론타워에서 즐기는 특식
 ③ 캐나다 제의 도시 토론토, 나이아가라 관광
 ④ 토론토 왕복항공 이동 - 장거리버스탑승, 새벽기상없이 여유롭게 나이아가라를 즐기는 절호의 찬식
 ⑤ 샌제롬 아이스우마을 ⑥ 테이블락/월풀/원예학교/꽃시계/수력발전소
 ⑦ 세계 최상품, 나이아가라 특산물 REIF 아이스 와인시음
 ⑧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 관광

▶출발: 9/2(금) 9/2 발출발 ~ 9/5 LA 도착 **\$949** (왕복항공포함)

제이킴 동행 "LA에서부터 모시겠습니다."

푸른투어LA 오픈기념 이벤트

★응모기간: 2016년 7월8일 ~ 10월14일
 추첨일: 1차 8월 15일, 2차 9월 15일, 3차 10월 15일
 (한국왕복항공권 8월 15일 1장, 9월 15일 1장 추첨하며 그 외 모든상품 10월 15일에 추첨합니다)

★응모처: 푸른투어 사무실 내방
 사무실 내방 고객님께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그랜드서클 9대캐년 + 세도나 7일

예술과 대자연의 만남 (세도나), 거대한 협곡 (그랜드캐년), 빛의 마을 (엔텔로프 캐년) 콜로라도 강을 따라 형성된 (글렌캐년 & 파벨호수), 나바호 부족 성지 (모뉴먼트밸리) 바람이 빚어낸 신비의 (아치스캐년), 모든 캐년을 모아놓은 듯한 (캐년랜즈), 협곡속으로 (캐피틀리프), 붉은 침판들의 향연 (브라이언스 캐년), 웅장함의 극치 (자이언캐년), 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도시 (라스베가스)

▶출발: 8/25 **\$849**

단풍절정 한국일주 10일

전주/해남/순창/한려수도/남해/외도/경주/영덕/설악 등 단풍일주

▶10/20 **\$2,560** (항공포함)

서부 본부 세도나 투어 알렉스 강 고문 동행

라스베가스/세도나 3일 ▶8/22, 9/2, 9/12, 9/26

신상품 런칭기념
 - 하루 하코도 반나절을 세도나에서 제대로 세도나를 느끼고 즐기
 - 라스베가스 1박 / 세도나 1박, 이제까지 없던 <럭셔리 세도나 여행>

라스베가스/세도나/피나클스 4일 ▶8/29, 9/26

오크크릭캐년, 예술인의 마을 스크즈데일, 아리조나 미션, 사구어로 국립공원

HOLLYWOOD LA 일일투어

▶매일출발 **\$59**

(50인승 전용차량, 한인가이드, 중식포함)

올베라거리/다운타운/다저스타디움/그리피스천문대/힐리우거리/로데오거리(차창관광)/산타모니카해변 파머스 마켓/그로브 올 등

동부 본부

실속 미동부 5일 ▶매주수/토 **\$799** (항공포함)
 (뉴욕/워싱턴 DC/나이아가라)

미동부/천성 6일 ▶매주수/토 **\$899** (항공포함)
 (미동부 5일 + 토론토/천성)

미동부/보스턴 7일 ▶매주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 5일 + 보스턴/뉴포트)

미동부/캐나다 8일 ▶매주수/토 **\$1,1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성 6일 + 보스턴/뉴포트)

미동부/캐나다 8일 ▶매주수/토 **\$1,199** (항공포함)
 (미동부/천성 6일 + 몬트리올, 레이크조지, 퀘벡)

미동부/천성/보스턴/캐나다 10일 ▶매주수/토 **\$1,299** (항공포함)
 (미동부/캐나다 8일 + 보스턴/뉴포트)

“업계최초” 라스베가스 5성급 호텔 벨라지오와 함께하는 서부여행 3!4!5!

3대캐년 4일 ▶매주화 **\$389**
 4대캐년 4일 ▶매주토 **\$389**
 5대캐년 4일 ▶매주월 **\$599**

“타사비교 필수” 3대캐년+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매주화 **\$689**
 3,4,5대캐년 7일 8일 4대캐년+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매주토 **\$689**
 세코엔도 올드타운/프레즈노 고기부페 5대캐년+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8일 ▶매주월 **\$899**

그랜드캐년/라스베가스 3일 ▶매주수 **\$299**
 미사부 실속 여행 6일 ▶매주수 **\$599**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4일 ▶매주화/금 **\$389**

캐나다 본부 Wow~ 천성크루즈 포함

리얼 캐나다를 보대! 신상품 런칭기념

실속 캐나다 동부 5일 ▶매주목 **\$1,399 \$1,099**

토론토, 천성, 몬트리올, 오타와, 나이아가라, 올드캐베(어피/로워타운), 총독관저, 캐나다 연방 의사당, 와이너리 (캐나다 아이스 와인 사음까지) 방문

한국 본부 퍼펙트 건강검진

건강검진+리무진+강남소재 호텔숙박

No! No! No! 25인승 대형 디럭스리무진 최고급 호텔(특급), 지역별미

전국일주 7일 ▶토 **\$2,199**
 서남부권 4일 ▶토 **\$1,699**
 한려수도일주 3일 ▶월/금 **\$1,699**
 남해안 일주 ▶월/금 **\$1,499**
 평창올림픽강원 3일 ▶월/금 **\$1,549**

플러스퍼펙트검진 \$470 건강검진 \$350
 신체측정, 안구, 구강, 심전도, B형간염, 흉부X-ray, 소변검사, 혈액정량검사, 건강기능 식품부 초음파, 위내시경

골드퍼펙트검진 \$520 건강검진 \$400
 플러스퍼펙트 건강검진+수면대장내시경

울랜드 특별상품 디즈니, 유니버설 등 ▶매주화
 에버글레드 에어보트 특별출발 9/3

울랜드 3일 **\$799 4일 \$899 5일 \$1,399**
 마이애미 3일 **\$849 4일 \$949**
 울랜드/마이애미 5일 **\$1,399 4일 \$1,499**

유럽 여행설계사 데이비드와 함께하는

감성과 낭만의 스페인 일주 8일

HOT! 3대 이색특식 / 스페인 8대 내부관광지 포함

1. 스페인 3대 이색특식 베이야, 몽골리안BBQ, 신토불이 허몽
 2. 8대 내부관광지
 1) 세계적인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
 2) 유럽 3대 성당 - 세비야 대성당 관광
 3) 알함브라 궁전 4) 메스키타 대사관(내부)
 5) 산토도메고 6) 돌레도 대성당
 7) 가우디 최후의 걸작 - 파밀리아 성가족 성당
 8) 동화 속의 세계 - 가우디 구엘 공원

▶특별출발: 9/19 **\$2,299** (항공포함)

정통 서유럽 12일 ▶8/22, 9/5, 9/19 **\$3,399**

영국/프랑스/독일/스위스/이탈리

정통 동유럽 10일 ▶9/1, 9/15, 9/29 **\$2,999**

왕관/프리카/크리우/서열리초가/부다페스트/버넨나

동서유럽 20일 ▶8/22, 9/5, 9/19 **\$5,199**

런던/파리/인티라켄/밀라노/베니스/로마/프라하/버넨나 등

미니 서유럽 8일 ▶8/22, 9/5, 9/19 **\$2,899**

런던/파리/인티라켄/밀라노/베니스/로마/프라하/버넨나 등

꽃보다 발칸 5개국 8일 ▶9/24 **\$3,099** +항공

4성급 호텔이상 전용버스, 입장료포함 전 일정 특식제공

해물파스타/송아기/홀리리케

스페인/포르투갈 11일 ▶9/12, 9/26 **\$3,199**

리스본/세비아/코르도바/톨레도/바르셀로나

그리스/터키 11일 ▶9/12, 9/26, 10/3, 10/17 **\$3,099**

이스탄불/카피도키아/코아/안탈리아/파묵칼레/에페소/데살로니카/고린도/아테네

이태리 일주 7일 ▶8/27, 9/10, 9/24 **\$2,799**

밀라노/베니스/피사/피렌체/로마/폼페이

뿌라비다 코스타리카

활화산 용암 온천물로 즐기는 알칼리 온천욕
 화이트산/리베스/비/폭포공원 관광 포함

4일 **\$850** +항공 5일 **\$825** +항공 6일 **\$1,090** +항공

하와이 킨카피올라 호텔 4일 **\$799**
 애쉬튼 와이키키 4일 **\$929**
 호놀룰루 시내관광, 오아후/섬 입장 관광 하와이 허니문 3일 **\$1,349**

멕시코 하얏트/바 로스카보스 숙박
 신혼여행 / 골프패키지 All inclusive 서비스

로스카보스 4일 **\$659** +항공 5일 **\$800** +항공 6일 **\$1,000** +항공
 칸쿤 4일 **\$800** +항공 5일 **\$950** +항공

광고상의 모든 컨디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상품은 비수기 기준으로 성수기시요금에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아스포라여 일어나라!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행 2:5절

MAIN SPEAKERS



이형자 이사장



김상복 목사



김춘근 교수



최순영 장로



서영희 목사



김승욱 목사



권혁빈 목사

2016

제 4회

햇불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Global Korean Diaspora Mission Conference

일 시 2016년 8월 13일(토)~14일(주일)

장 소 세종대학교 대양홀

대 상 국내외 거주 한인 디아스포라, 햇불회원 교회 각종 협력 교회 및 단체

등록방법 1. 홈페이지(www.diaspora.co.kr) 2. QR 코드를 이용한 등록

등록비 2만원

문의 02-570-7067, 7068 diaspora2016@torchcenter.org

주최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후원 | KALCAM | 대한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 TORCHTRINITY | 국민일보 | CTS | CBS | CGNTV | Duranno | 크리스천연합신문 | H1TV | 대림성모병원

협력단체 및 교회 | 온누리교회, 할렐루야교회, 지구촌교회, 갈보리교회, 한중사랑교회, 미주온누리교회, 재한고려인목회자연합회, 재한조선족목회자연합회, 고려인마을, 중앙성결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안산제일교회, 부평부광교회, 광주분향교회, 부산포도원교회, 전주완산교회, 진주성광교회, 울산덕화교회, 대전선창교회, 거제고현교회, 제주성안교회, 중앙아시아햇불회, 쿠바햇불회 등 각 지역 햇불회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예수이름이 능력입니다” 제2회 미주 목회자 사역세미나

- 일 시 : 2016년 8월 20일 8:00AM ~ 5:00PM
- 장 소 : 사랑의 빛 선교교회(Light Of Love Mission Church - 담임목사 윤대혁)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 참가비 : \$20 (사역을 쉬고 계시거나 목회를 준비중인 분 면제)
- 대 상 : 이민교회 목회자, 개척 준비하시는 분,
사역지를 찾아 기도하는 신학생,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리더

오전 주제 발표



주강사
김기섭 목사
(LA사랑의 교회)
부목사는 소중한 사역이다



주강사
이승중 목사
(어깨동무 사역원 대표)
이민목회의 출구



주강사
Rev. Dr. Scott A. Lemenager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Clerk of Standards and Credentials
Evangelical Church Alliance (안수위원장)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사안수



개회예배 초청설교자
박부환 목사 (한마음제자교회 담임)
"본질을 회복하라"

ECA 소속 목사는
매년 보고서를 통해
사역성장을 보고합니다.
현재 보고서를 내지않아
목사자격이 상실된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오후 사역 보고(선택 수강)

•사역의 현장에서 - 오후 1시 40분 ~ 2시 40분



Rev. Stephen Feinstein
(육군소령)
군목사역



Rev. Esau Canales
(Church on pearl, IFNV)
다문화사역, 푸드뱅크



민승기 목사
(OC교회협의회 회장)
가정목회도 중요합니다.



김영찬 목사
(효사랑선교회)
교회실버사역

•사역하는 교회 - 오후 2시 50분 ~ 3시 50분



Rev. Joseph Choi
(현 육군대위 및 병원원목)
원목사역



이준성 목사
(ANC 온누리교회)
선교적인 교회



신상원 목사
(미주합동대학신학대학원 교수처장)
교회와 교단과의 관계성



김승식 목사
(SBC 교회개척코디네이터)
교회개척과 등록

•사역이 곧 복음이다 - 오후 4시 ~ 5시



이희문 목사
(LA기쁨의교회)
전도하는 교회



성요셉 목사
(소망장로교회)
주일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김경렬 목사
(산타모니카 한인교회)
캠퍼스사역 헌신이 아니라 희생이다



조진용 목사
(리버사이드 한우리교회)
1.5세 목사의 이민목회

미군 군목이나 대형 병원 원목으로 지원하기 원하는 분 참석 환영합니다.

"십자가사건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신앙고백이었고 가장 큰 사역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교회가 공격을 받아도 예수이름이 능력입니다. 주강사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자원해서 사역을 통한 신앙고백을 주님앞에 드립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종들이 은혜로 감당하는 사역이야기에 함께하세요. 교회가 크냐 작냐 성도가 많냐 적냐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영성이 좋냐 안 좋냐라는 세상이야기가 아니라 종으로 부름받아 주님오실때까지 희생하고자 하는 사역자들의 신앙고백입니다."

주최: US 채플린 연구소 / 주관: Bible Love Unity Edifying Ministry

후원: ECA 한인연합회, OC 교회협의회, 크리스천헤럴드, CHTV18.88 기독교일보, 미주 국민일보 연락처: (213) 800-1825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2)

푸른 물결의 흥해와 붉은 암석의 조화 에일랏만



흥해 (이스라엘쪽 에일랏만).



이스라엘 타바 입국장.



에일랏 항구.



국제공항.

타바(Taba) 국경을 벗어나면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쉰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국경의 삼엄한 보안 검색 때문에 긴장했기 때문이다.

간혹 짐 검사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분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인상이 흐려지기도 한다. 성지순례 전에 단단히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이 구동성으로 금하나 사이로 공기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기온도 달라진다고 말한다. 누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같은 곳이라도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

사막을 옥도로 만들었다는 이스라엘은 과연 누가 살고 있기에 이런 대조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성도가 가는 곳은 언제나 천국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이 새삼 국경을 넘어오면서 생각난다. 젓과 꿀이 흐른다고 약속된 가나안 땅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순례 버스를 탈 때는 오른쪽이 좋다.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흥해(Red Sea)와 에돔(붉다)의 암석 산들을 대조하여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타바에서 에일랏까지는 불과 10분 남짓한 거리에 있다. 국경에서 출발하여 오른쪽으로 흥해를 보게 되는데 흥해는 본줄기가 넓이 250km에 길이 2000km 깊이가 평균 490m 깊은 곳은 2800m에 이른다. 흥해는 아라비아반도와 아프리카 사이를 지나오다 북동쪽과 남서쪽으로 갈라지는데 남서쪽이 수에즈운하가 있는 곳이다. (모세의 출애굽 시 흥해도하 장소) 북동쪽이 아카바 만, 요르단(Gulf of Aqaba), 서쪽 방향에 에일랏 만, 이스라엘(Gulf of Eilat)이라고 부르는 곳이다. 길이가 150km(93.2마일) 넓이가 18km(11.2마일) 깊이가 가장 깊은 곳이 1900m(623피트)이다. 붉은 바다(출14:1~31)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 연안의 산호, 주변부의 누비암석의 붉은 빛에서 생긴

에일랏은 출애굽 과정 중 통과 장소, 솔로몬의 무역항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더 힘을 얻었던 곳

것이라 본다. 히브리어로는 갈대, 골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넌 흥해가에 갈대가 많이 우거져 이런 명칭으로 불리웠으리라 생각한다.

아카바만 동편은 에돔(Edom) 족(에서의 후손)이 살던 지역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방해하기도 하였다(민33:35~36/신2:8). 에돔족 또한 붉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조상 에서가 야곱에게 팔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역사가 있다(창25:30~34).

에돔의 북쪽경계는 와디엘 후사이고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이며 남쪽은 Ezion Geber(Eilat)이다, 서쪽은 아라바 광야(Arava desert)이다(민34:3, 20:16). 에돔(Edom)은 북쪽과 남쪽에 있는 산지를 형성하므로 동쪽의 사막으로부터 보호받고 넓은 고원지대는 초지로 이용되어 목축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고대로부터 카라반이라는 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를 왕의 대로라 한다. 이 도로를 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갔다. 지금 요르단 쪽에 있는 이 도로는 사막고속도로로 아카바에서 수도인 암만까지 연결되어 있다.

다시 눈을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리자. 타바에서 에일랏 가는 방향에 흥해가에 세워진 수족관이 있다. 물고기를 모아 수족관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해저로 내려가는 시설을 따라가면 유유히 노니는 각양각색의 물고기들을 자연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있는 곳이다.

시간과 재정이 허락한다면 꼭 한번 둘러볼 것을 권하고 싶은 곳이다. 그외 스킨 스쿠버를 할 수 있는 여러 장소들이 있다. 수심 10~20m까지 산소통을 매고 물고기처럼 바다를 살펴보면, 물이 너무 맑아 바닥에 있는 이상한 물고기까지 관찰할 수가 있다. 보통 초보는 50분정도면 감사와 함께 1시간 동안 해저

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다. 여름에는 40도 겨울에도 20도 이상 오르내리는 에일랏은 이스라엘 남단의 천연적인 휴양도시이며 자유수출지역이기도 하고 보세구역이기도 하며 이스라엘에 유일하게 있는 배 위의 카지노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브엘세바(Beersheba)에서 285km(177마일), 예루살렘(Jerusalem)에서 350km(217마일) 떨어져 있고, 이스라엘 최북단 메툴라(Metula)까지는 470km(292마일)가 떨어져 있는 에일랏은 구역에는 Ezion Geber 혹은 El paran이라고 불리웠다.

출애굽 과정 중 통과 장소(민33:34~35) 엘랏(신명기2:8)이며 솔로몬의 무역항 엘랏(왕상9:26, 대하8:17~18)이었고, 여호사밧과 아하시아 왕의 관심지역이었다. (대하20:35~37) 유다왕국의 최남단 아프리카로 통하는 해안지역으로 발전하였으나 6세기에 일어나 아랍에 점령되었다가, 7세기에 다시 유대인의 도시가 되었다. 12세기에는 십자군에 의해 멸망당하여 한동안 잊혀진 도시가 되었다가, 1948.5.14일 이스라엘 독립당시 이스라엘 땅으로 되었고 1949년 1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에 완전히 속하게 되었다. 1951년에 현대식 도시로 개발되기 시작하였고, 1963년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겨우 200~300명의 주민에서 10여만 명의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었으며, 흥해를 이용한 관광지로서 전 이스라엘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지역이 되었다. 1956년 시나이 전쟁(2차 중동전쟁)후 이스라엘 선박이 아프리카로 항해하게 되어 그 후로 아시아, 아프리카의 주요 무역로가 되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지금은 아시아 특히 한국의 자동차들이 에일랏 항구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역에 팔

리기도 한다.

타바에서 에일랏으로 들어오는 길에 좌측의 야적장을 보면 현대자동차 새 차들이 먼지를 뒤집어쓰고 늘어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에일랏은 공항을 중심으로 동쪽 지구는 흥해연안의 호텔 및 휴양지구이며 서쪽은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혼여행지 및 휴가철에 가장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하다 전 세계에서 특히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흥해의 아름다움과 네게브 광야의 신비를 체험하기 위해 해마다 많이 찾아오기도 한다.

또한 철새들의 이동경로 중 하나이며 광야의 오아시스이기도 하다. 여름은 물론이거니와 겨울인 우기에도 반바지나 수영복만 입고 돌아다니는 관광객들을 많이 볼 수 있기도 하다.

에일랏 도시 반대편(동편)에 있는 도시는 요르단의 아카바 도시이다. 최근에 흥해가에 커다란 국기를 게양하여 요르단임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요르단(Jordan)의 아카바(Aqaba)는 전형적인 아랍도시이며 집 구조나 경제현상이 이스라엘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흥해가에서 수영하는 여인들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랍 특유의 종교적 문화적 요인 때문이다. 대부분의 순례객들이 에일랏 건너편 도시인 아카바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순례의 코스가 다양화되어 그 전에는 이집트 누에바(Egypt Nueva)에서 배로 아카바(Aqaba)로 하여 요르단을 가던 코스가 이스라엘에 일단 입국하였다가 아카바 국경을 통해 요르단으로 가서 요르단의 최고 자랑거리인 페트라로 가는 경우도 생겼다. 푸른 물결과 누비아 암석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에일랏은 그냥 지나치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이스라엘이 광야 통과 시에 에일랏에서 쉬엄을 골랐던 것처럼 순례객들도 이스라엘 순례에 앞서 쉬엄을 고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백성들과 함께 진행하였던 흥해에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한번 되새기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시바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 정박했던 곳, 클레오파트라(Cleopatra)가 여러고를 가기 위해 지나갔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돌아서 가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었던 에일랏은 오늘날 성경과 관련 없이 현대 관광도시화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순례의 첫걸음인 에일랏에서의 유숙은 상당한 영적 의미를 부여한다. 서쪽 광야로 해가 지는 아름다운 모습도 좋고 동쪽 광야에서 떠오르는 아침 햇살도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가운데 떠나지 않았던 아름다운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 에일랏과 흥해는 다시 한번 더 백성의 마음을 다잡는 역할을 했으리라 본다. <계속>

◆서병길 목사는 전북 전주대학교 법학사 및 행정학 석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이스라엘 역사 및 히브리어 수학, 플러신교대학원 선교목회학 박사이다. GMS 이스라엘 선교사로 예루살렘에서 12년 사역했고, 임마누엘 대학교, 센트럴 신학대학교, 순복음직영신학교에서 구약과 선교학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다우니에 있는 골든스테이트 한의과대학에서 한의학 석사 취득 후 CA 한의사 면허를 받은 후 우리나라 의원을 운영하며 새 하늘선교교회와 이스라엘선교회를 동시에 섬기고 있다.



서병길 목사. 이스라엘선교회

201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및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존회원
- 기독교학(PhD),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지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42131407-469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유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 admissionsmaster@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국의 사랑
한 의사 **Zo'e 조애**
Tel: (213) 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 (8th & Lake St.) (일수토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할리우드 지역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 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섬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인(실내외, 차량), 제작, 반죽물인쇄 전문
www.junimedia.com

교/회/렌/트

200석 예배실, gated 넓은 주차장, 식당
부속시설, 유치반, 청년반, 유아반
일요일 예배, 수요일 저녁 사용 가능 (Fwy 5 & 91 근처)
Tel: (626) 203-8008, (562) 677-6005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회비: 월 \$10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 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작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픔.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골든씰
Golden Seal
천연항생제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 폐렴, 신종플루, 독감,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거름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손가락, 발가락,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손목, 발목 질환) *지속적인 코골이 증상

치질(항문하혈, 통증), 독소제거, 혈관 청소,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불임증 (자궁축, 하혈), TMJ 턱관절 장애, 우울증, 관절염, 다리 쥐 오름,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만성두통, 요통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영병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게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 5,997,908

방송인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김병태 칼럼

성에 노출된 세상, 나부터 조심해야!

휴대전화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삶의 혁명을 가져다주었다. 휴대폰 하나로 문화생활, 쇼핑 활동, 외국어 소통, 내비게이션으로 활용하는 등. 그래서 젊은이들은 손에 휴대폰이 없으면 무기력해진다. 이렇게 좋은 휴대폰이지만, 그것이 나쁜 쪽으로 활용되어 악한 일에 사용되고, 범죄에 오용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동일한 것을 어떤 사람이 다루느냐에 따라 용도가 엄청나게 달라진다.

30대 후반의 남성이 휴대전화 채팅을 통해 20대 성매매 여성을 한 모델로 유인했다. 그는 경찰 행세를 하면서 여성을 협박했다 “성매매로 처벌 받기 싫으면 돈을 내라” 20만원의 금품을 뜯어내고 강제로 성추행을 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도, 사칭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으려 해서는 안 되건만, 더구나 상대방의 약점을 탈미 잡아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악한 인생 처세술이 세상을 얼마나 어지럽게 만드는지. 사실 알고 보면 많은 돈도 아닌데, 양심을 팔아먹고, 상대방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니 세상만사가 어찌 되겠는가?

전도유망한 엘리트 판사가 있다. 그는 현직 부장판사이다. 존경받는 직을 맡은 자이다. 법을 다루는 신봉이다. 불의하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법을 적용하여 사회를 오염시키는 죄인들을 다루는 사람이다.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자이다.

그런 사람이 한 오피스텔에서 성

매매를 하다가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부끄러운 행동을 했으니 경찰 조사에서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돌려댔다. 거짓말로 세상을 다 현혹시킬 수는 없다. 경찰이 인적 사항을 조회해 보았다. 그랬더니 그는 현직 부장판사였다. 실체가 들뚱 난 게다.

그러니 또 무슨 말인가는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매매 광고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해 찾아갔다”고 변명했다. 그런데 사회 엘리트 인사가 술을 마셨다고 해서 무마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아무리 술을 마셔도, 아무리 매혹적인 성매매 광고지를 보았을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게 제대로 된 인생이다.

한 순간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 너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는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얼마나 힘들게 그 자리까지 갔을까? 그런데 추락하는 건 한 순간이다. 사실 어떤 궤도까지 올라가는 것은 정말이지 쉽지 않다. 천신만고 끝에 올라간 자리지만,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사소한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한다. 한 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방심이 우리 인생을 시궁창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천체도 그렇듯, 인생도 걸어야 할 정상적인 궤도가 있다. 궤도가 거추장스럽게 생각돼도 자신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망이다. 아름다운 인생, 존경 받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상식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

다.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정상적인 삶만 유지하면 된다.

그런데 때때로 정상적인 궤도가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밋밋해 보일 수도 있다. 무엇인가 짜릿한 것을 맛보고 싶을 때도 있다. 그래서 궤도 밖을 넘보지만, 궤도 이탈은 너무 위험하다. 기차는 철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변하지 않는 궤도를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를 따라 할 걸음씩 행보를 옮겨놓아야 한다.

사람들을 결혼할 때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굳게 서약한다. 그러나 그 서약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 사람과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내 여자 외에 다른 여자를 품는 건 있을 수 없다. 마음속 생각에도 품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간음이라고 하셨으니까.

사실 마음속에 품은 음란한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설령 나쁘고 악한 생각에서 출발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에 품는 생각을 늘 점검해야 한다.



김 병 태 목사
성천교회

동정심, 단순한 친구 관계로 출발해도 사단이 그 생각을 오염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이니까.

인생이 누리는 모든 즐거움과 쾌락도 ‘허용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성은 아름답다. 거룩한 것이고 신성한 것이다.

또 그것을 통해 마음껏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구태여 사막의 수도사들처럼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니까.

그렇다고 그게 남용되고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 부부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즐거움이어야 한다. 애인 관계도 안 된다. 더군다나 친구관계는 도저히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성매매라니? 아무리 성교의 즐거움이 좋더라도, 아무리 돈이 좋더라도 ‘접근금지 구역’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세상은 정말 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듯하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 바로 나부터!

지난 주간에는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 또 하나의 성 관련 사건이 있었다. 사실 더 이상 사람들의 입에 회자시키고 싶지도 않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위해 한 마디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이 시대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려는 사역자가 있었다. 그가 이끄는 단체의 사역은 전국적인 규모로 대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많은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은혜를 누렸다. 삶의 변화도 많이 일어났으리라.

그런데 그 단체를 이끄는 대표자가 여고생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단다. 10여 년 전의 사건이라고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지만,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다. 더구나 성직자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한 여성을 성적인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것도 4년이란 세월 동안.

여성이 연락을 끊으려고도 했단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찾아냈단다. 그리고 협박까지 했단다.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사역을 망치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네 인생은 망한다.” “너 이래 놓고 이제 시집 어떻게 갈래?” 사역을 망치는 게 그렇게 무서운가? 그렇게 성공한 사역은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역인가? 여자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사실 이런 사건을 저지른 그분을 향해서만 하는 말은 아니다.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이다. ‘두 얼굴의 가면을 벗어던지라!’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혹독하게 질책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설교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외식하고 있는가? 두꺼운 가면을 쓰고서 거룩한 척 하는가? 나는 예외라고 구태여 애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저 나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한 순간 한 순간 주님의 얼굴 앞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속에 성결한 마음과 몸을 지켰으면 좋겠다. 부족한 나부터!

•고경태 칼럼

더 많은 유혹 받는 지도자들, 더 높은 윤리의식 가져야

달란트 비유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마25장).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재능은 달란트 비유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5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고전4:1~2).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은, 많이 맡은 자에게 더 많은 충성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을 위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오히려 타락시키고 멸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된다면, 그 불충(不忠)으로 인한 패악이 얼마나 클 것인가? 반면 어디서나 많이 맡은 자는 이 시대에 존귀와 영광을 받는다. 그러

나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이 충성해야 하고 더 많이 인내해야 한다. 인간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능력까지 있지 않다. 그래서 능력이 부족한 자는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그런데 그 구함이 악할 때에는 곧 타락하게 된다. 보통 사람보다 더 심각하게 타락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맡은 자가 이 땅에서는 영광을 얻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실상 세상의 영광과 존귀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겸하여 얻을 자가 거의 없다.

칼빈은 성도의 고난이 복된 것은



고 경 태 박사
개혁신학포럼 학술위원

오히려 연약함으로 죄 지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끼기에 기도에도 더 열심을 낸다는 것이다. 인간은 부족함이 없을 때엔 구하지 않는다. 성도는 연약하고 늘 결핍으로 필요를 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가까

이 다가가려 애를 쓴다.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성도의 삶이다.

교회 지도자들의 부도덕 또는 불법 행위들이 자주 세상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질타를 받고 있다. 기독교 언론에선 더 자주 등장한다. 얼마 전 꽤 유명한 청소년교단 대표 이모 목사의 성적 일탈이 보도됐다. 폭로성 기사로 의심 받을 수 있는 대목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유명세를 날리던 한 목사의 추락은 그 사람 개인적인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교회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개척교회의 입장에선 매우 힘든 환경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지 않아도 복음전도의 열악한 환경과 함께 싸우며 근근이 버티며 몸부림을 치는 개척교회들

은,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지도자의 범죄는 더 예리한 잣대로 평가해야 한다. 약자에게 엄하고 강자에게 관대한 법은 기독교 원리에 맞지 않는다.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자기 행위가 엄격하게 판단될 것을 예상해야 한다. 특히 교계 지도자들은 매우 엄중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많은 유혹에 더 낮은 윤리를 갖는다면, 범죄는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그리고 자기 추행을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할 것이다. 큰 지도자일수록 사소한 언행에도 주위를 기울이고 범죄에 걸리지 않도록 매사에 근신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제24차
9월 5일 하루 신약통독

이번 노동절(Labor day) 휴일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루에 신약 27권 완독

Labor day 휴일을 맞이하여 **신약 27권 260장 전 절을 하루에 통독**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신약성경 전 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통째로 우리 마음에 담겨질 때에 놀라운 감동과 새로운 깨달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처럼 맞이하는 휴일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과 육이 새롭게 활력을 얻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6년 9월 5일(월) Labor day 오전 8:00

장소 갓스윌연합교회(이희철 목사)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el:(909)983-0994

참가비 30불 (식사 및 간식)

강사진

안성기 목사

이희철 목사

김동원 목사

교회 찾아오시는 길

Tel:(909)983-0994

904 E D St, Ontario, CA 91764

주최: 미주요한선교단 (대표 안성기 목사) 전화문의 환영 Tel:(909)268-4279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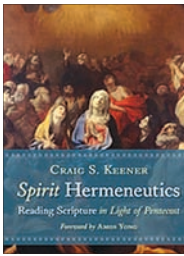


신간 추천

Spirit Hermeneutics

Craig S. Keener | Eerdmans | 55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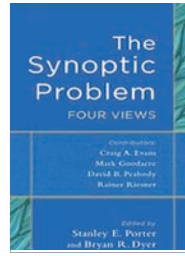
성경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 등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애즈버리신학교 저명한 성경학자인 크레이그 킨너는 이를 오순절의 빛 아래 시도하고 있다. 물론 저자 스스로 이 책은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를 다룬 안내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책은 '신자'들이 '성경'으로서 본문을 어떻게 읽을지에 대한 책이다.



Synoptic Problem: Four Views

Stanley E. Porter 외 | Baker | 20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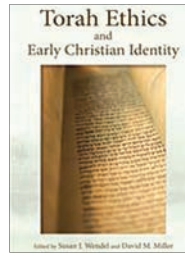
공관복음 문제에 대한 네 가지 견해를 다룬 최신의 책으로, 참여 저자들은 크레이그 에반스, 마그 굿에이커, 데이비드 바렛 피어바디, 라이너 라이너 리스너 등이다. 각 장마다 관련 서적들에 대한 옹호자들의 추천이 있기에, 독자들은 공평하게 각 가설에 대하여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각 가설 옹호자들이 다른 가설 옹호자들의 지적을 반박하는 식으로 구성돼 있다.



Torah Ethics n Early Christian Identity

David M. Miller 외 | Eerdmans | 28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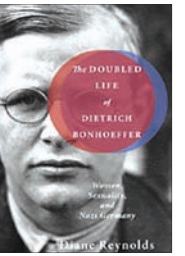
본서는 모세 율법과 초대 기독교 윤리를 조사하는 책으로,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진 총 13명의 학자들(리처드 헤이스, 스캇 맥나이트, 데이비드 밀러, 수잔 방델 등)의 글모음집이다. 각 저자들은 초기 유대교와 토라의 관계(1세기 유대교, 필론, 요세푸스 등), 신약과 토라 윤리(복음서, 사도행전, 야고보서, 바울서신 등)를 다룰 뿐 아니라 순교자 유스티누스 등도 살피고 있다.



The Doubled Life of Dietrich Bonhoeffer

Diane Reynolds | Cascade Books | 466p

본회퍼의 인간 관계를 중심으로 살핀, 그에 대한 또 다른 분석서이다. 저자 다이앤 레이놀즈(Diane Reynolds)는 저널리스트로 본회퍼 주변 인물들의 1차 자료들, 특히 첫 약혼녀 엘리자베스 진(Elisabeth Zinn)이 제시한 사진들을 포함해 여성들이 제시한 1차 자료들을 활용한다. 시간과 대상에 따라 다소 다른 면모를 보이는 본회퍼의 모습을, 본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터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

원리를 알고 기도하면 당신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틈만 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단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저자 백용현 목사는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저자는 반드시 영적 원리에 따라 기도하라고 권면한다. 영적 원리들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기도의 원리도, 기도의 방법도, 기도의 순서도, 기도의 열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에 대한 저자의 깨달음은 기도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꽤 오래 전부터 전국 각지를 다니며 개교회들에서 이 강의를 해나갔다. 기도하면 복받는다, 응답받는 기도는 따로 있다는 기복 신앙적 기도의 병폐에서 벗어나, 말씀에서 기도의 모든 것을 알았고 체계화했으며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 원리를 도출해 냈다.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에게 왜 기도를 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에는 어떤 비밀들이 있는지 말씀과 기도 사역을 통해 얻은 50가지 원리를 전한다.

본서는 기존의 기도 주제 도서들과 구별된 4가지 특징이 있다. 첫



기도학교 백용현 두란노 | 268쪽

째, 기도 방법에 대한 연구에서 기도 원리를 가르쳐 주고, 둘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의 열심에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려준

다. 셋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하며 마지막으로는 기도 노력에서 그치지 않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한다.

개인 또는 소그룹이나 교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50가지 기도의 영적 원리를 따라 매일 1장씩 기도의 원리를 공부하며 기도를 해나가고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짧은 기도문과 함께 성경 본문을 찾아가며 스스로 깨달음과 기도의 제목들을 적을 수 있는 메모란까지 마련되어 있다.

기도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마다 기도 용사를 훈련시키고 결국 한국교회가 건강해져 하나님의 나

라가 확장되도록 도울 것이다.

저자 백용현 목사는 한국 교회가 기도를 다시 일으키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여 기도의 사람들을 배출하는 것을 목회 사명으로 삼고 목회하고 있다.

백 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재학 당시, 눈앞에 놓인 여러 현실적인 문제와 이슈들을 풀어 가면서 그 무엇보다 기도의 힘을 절감했다.

오랜 목회 현장은 저자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영적 원리들을 깨우치게 했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박한 기도의 현장에 있는지를 보게 해주었다.

이영인 기자

총회 공고 및 회원모집

기독교복음선교연합총회에서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초교파로서 복음(=말씀)중심, 선교중심, 연합(=친교)중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2015년도에 창립된 교단입니다.

회원 모집

1. 시무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2. 남·여 구분이 없습니다.
3. 목사, 장로, 권사로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4. 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 가입상담전화 T:(213)272-6031

총회 일정

1. 일시 : 2016년 8월 23일 화요일 오후 4시
2. 장소 : 나눔과 섬김의교회(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
3. 주소 :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8월 24일~25일 (1박 2일 세미나 및 관광)

총회장: 김인철 목사 준비위원장: 강성수 목사

총무: 김 엘리야 목사 T(213)272-6031



General Assembly of Christian Gospel Mission Alliance (CGMA)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 (213)272-6031

[북스리뷰]

“현대과학도 풀지 못한 비밀”

‘나는 천국을 보았다’ 두 번째 이야기

하버드 의사이자 뇌과학자 이븐 알렉산더 박사.

임사체험 이후, 과학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인 그는 진실을 향한 여행을 시작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날아든 편지 그는 같은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일관성과 통일성에 주목했다.

이어 고대철학과 현대과학에서도 같은 뿌리를 발견하며 마침내 ‘이 세계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는 위대한 진실의 문이 열렸다.

그의 경험은 오래 전 현자들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며, 우리가 잊어버린 기억이었다.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에 알기 시작한 인류에게, 천국이 보낸 선물이다.

알렉산더 박사의 임사체험은 생명에 대한 현대과학의 정설을 뒤엎고, 죽음의 의학적 급기를 깬 세계적인 사건이 되었다.

그의 경험은 뇌사상태에서도 의식이 존재한다는 증거로, 의식의 비밀에 다가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두 번째.. 이븐 알렉산더의 김영사 | 228쪽

알렉산더 박사는 자신의 경험을 과학적 탐구와 의학적 검증, 철학적 통찰과 종교적 성찰로 분석하며, 현대과학이 풀지 못한 의식을 비밀을 풀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후, 천국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알렉산더 박사의 연구는 현대과학, 종교, 고대철학, 그리고 영적 체험자들의 경험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로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로 가장 완벽한 천국의 지도가 완성되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두 번째 이야기>는 고대에 이미 사후세계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졌음을 발견하는 데서 출발한다. 죽음 이후에 이상적 삶이 펼쳐진다고 믿었던 플라톤, 그리고 물질세계의 경이로움을 찬양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박사는 현대과학의 바탕이 되었던 두 개의 철학이 결국 같은 결론을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모두 우리 존재의 근원을 찾고자 했다.

알렉산더 박사는 인류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신, 그리고 모든 과학자와 철학자의 이야기가 같은 결론을 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예측한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고대철학을 비롯해 인류가 가진 철학과 통찰, 과학자들의 연구, 영적 수련자들의 기록, 그리고 전 세계 독자들이 보내온 영적 체험에서 발견한 천국의 증거들이 실 새 없이 계속 펼쳐진다.

도원호 기자

[북스리뷰]

“하나님 관점에서 서술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



예수와 하나님 나라 김군진 새물결플러스 | 544쪽

물론 후대의 해석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 수 없다는 게 아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말씀과 사역을 보면, 주님의 존재와 목적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이기를 철저히 거부하시고 죽음의 길로 향한다. 예수님은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그의 모든 선포와 활동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집중돼 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시다.

이 책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그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하나님나라 관점에서 서술했다. 예수님과 관련해 역사적이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들과 말씀들을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특정한 칭호를 통해 자신을 알리는 것보다, 의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셨음을 입체적이고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책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재하고 실현되며 이루어지는지 다루고 있다. 기존 목시사상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심판·권세 있는 왕의 모습을 철저히 부수고, 죽음으로서 임하는 하나님나라를 그려내고 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속성과 종교성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일그러진 욕망과 자화상도 계속 무너트리면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그 하나님나라의 침투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엮드리게 한다. 그 분은 실로 죽음을 통해 이 땅에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나라 자체이시다.

본서는 총 5부 18장으로 이루어졌다. 1부 ‘예수의 역사적 배경’, 2부 ‘메시아 예수의 오심과 그의 인격’, 3부 ‘사회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4부 ‘종교와 하나님나라’, 5부 ‘심자가와 부활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등으로 나뉘어 구성돼 있다.

방영민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선행과 상관없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나?”

고민해야 할 용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한국 기독교의 주요 슬로건이라 할 수 있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 지하철에서, 주일 설교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생각 속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가는가? 만약 그렇다면 평생을 선하게 살았지만 영접하지 않고 죽은 사람도, 세월호와 같이 무고하게 죽은 사람도 역시 안 믿었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교리 속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기가 미심쩍고 불편해지게 될 수 있다.

저자는 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문구가 바로 한국교회의 참된 모습을 잃게 한 주요한 이유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불신지옥이라는 말은 결국 타종교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 소망을 주지 못하고 배타적으로 만들며,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이웃 사랑의 명분을 퇴색시키고 말기 때문이다. 책은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 낸 슬로건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성경이 설명하는 구원, 천국, 지옥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불신지옥을 넘어서 서성광 홍성사 | 176쪽

저자의 주장과 생각의 초점은 하나님나라에 맞춰져 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구름 너머의 왕국이 아니라, 이 땅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전진해 가는 그 하나님나라를 우리가 소망해야 할 궁극적 목표로 보고 있다. 그런 전제 아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세를 추구하기만 하는 삶이 아닌,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다는 당위가 세워진다.

이 책이 주요하게 다루는 지옥에 대한 내용은, 기존 교회에선 듣기 어려운 개념들이었다. (재림 전과 후의 지옥, 악인과 죄인의 지옥 등). 이 내용들 속에는 유아들과 무고하

게 죽은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의견 등 ‘불신지옥’의 타이틀 아래 생겨난 딜레마들을 검토해 보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들의 큰 관심사인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도 다루는데, 저자는 양과 염소의 비유(마 25장)를 근거로 주장을 펼친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비유를 봤을 때 구원의 판단 기준은 가장 작은 자에게 어떻게 대했느냐이며, 교회에 나갔는지 또는 세례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

물론 저자는 이것만이 전편일률적인 구원의 기준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런 의견을 제안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안타까운 영혼들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

이 책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이에게 권장하고 추천하고 싶다. 이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좀 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박예찬 북뉴스 우대회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언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동반노와 기독교동족성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100% 천연성분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2차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 GOLD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 GOLD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솔루션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억제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입니다.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송해선행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Acts Ministries International Hosts Leadership Summit

BY RACHAEL LEE

Acts Ministries International, a denomination consisting of 13 churches in the U.S. and overseas, convened from August 4 to 6 for a leadership summit at Church of Southland, located in Anaheim, CA.

The denomination has churches located all across the U.S., including in New York, Massachusetts, Georgia, North Carolina, New Jersey, California, Ohio, and Pennsylvania. Some churches are more multi-ethnic and diverse in age than others, but most AMI churches tend to be younger with college students and young families, and all AMI churches have lead pastors who are Asian American.

AMI holds three major gatherings triennially, following the pattern of first holding a national gathering of lead pastors of AMI churches one year; then hosting the AMI Leadership Summit the next; and finally, convening at the AMI General Conference the third year.

This year's leadership summit drew about 500 leaders not only from the AMI churches in the U.S., but also from affiliated churches overseas, including from East Asia. "There's a lot of differences that we can focus on," said Young Kim, the lead pastor of Grace Covenant Church in Philadelphia, during the final day of the summit. "But we need to focus on Jesus, who has united us for one purpose."

"My hope is that as we get bigger, we would be even more unified; and that as we reach even more nations, that we would be

even more unified," Kim said.

Acts Ministries International (AMI), which was launched in 2002, is slightly different from other denominations in that there is less of a focus on formal structure or doctrine, and more of a focus on relationship and accountability, according to John Choi, the director of operations at Church of Southland. AMI does ordain pastors and the AMI churches consolidate resources for mission efforts and church planting.

"AMI is much more relationship-based," said Choi, who also said that lead pastors hold conference calls on a monthly basis. "We all believe in the core things -- the essential beliefs -- but there are also things we agree to disagree upon, like ordaining women."

There is structure in certain aspects, however. Two pastors, who are called 'trans-local team leaders,' serve as leaders of AMI: Keith Park, the lead pastor of Church of Southland, and Young Kim, the lead pastor of Grace Covenant Church.

Meanwhile, this year's leadership summit focused on the theme, "Grow Together, Grow Healthy," and had sessions discussing personal growth, relational growth, and kingdom building. Representatives from each church in AMI also took turns throughout the three-day summit to share updates from the past year and prayer requests for the near future.

Two pastors, Shan Gian and David Son, were licensed during this year's leadership summit. Both have been serving at Symphony Church located in Boston, MA.



Over 700 youth students gathered at this year's 'Joshua Generation' multi-church youth retreat at Taylor University. (Photo courtesy of Joshua Generation)

Multi-Church Youth Retreat Points Teens to 'Real Love' in Christ

BY RACHAEL LEE

The annual Joshua Generation summer retreat for youth took place once again this year from August 1 to 4 at Taylor University in Upland, IN, under the theme, 'Real Love.'

Joshua Generation, also called 'J-Gen,' has taken place each year since 1999, when ten churches in the Chicago area hosted a joint youth retreat together for the first time. Through the retreat, organizers aim to provide a space where youth students in churches without trained youth workers could encounter God, and where youth workers can also meet other youth workers and be encouraged.

The retreat has grown in scale

since its beginnings, and this year, over 700 students from 86 different churches gathered at the retreat, who were under the care of 97 counselors and 93 youth workers.

Speakers included Joshua Harris, pastor and author of 'I Kissed Dating Goodbye'; Min Chung, the lead pastor of Covenant Fellowship Church in Champaign, IL; David Larry Kim, the lead pastor of Harvest, the English-speaking congregation at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Orlando; and Michael Chung, the worship and education pastor of Jubilee Church in Medinah, IL.

AMP, the Korean American Christian rap group, and Move 4 God, a Christian dance ministry,

were also featured during the retreat.

"When we are honest, we can't help but see that many of us have bought into the idea that love is found in people, in things, or even in ourselves," said the organizers regarding the theme, 'Real Love.' "This is why we throw around the word 'love' so easily to describe how we feel about practically everything! Our generation is in need of a radical redefining of what love is."

"We sincerely hope that the students will know and experience the REAL LOVE of God in Jesus Christ at this conference," the organizers added, "and that they will head back home to live it out and share it with others."

Thanksgiving Church Votes to Transfer to American District in AG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The congregation of Thanksgiving Church, a Korean immigrant church located in Buena Park, CA, has voted to transfer its membership from a Korean district council to an American district in the Assemblies of God denomination. 97.89 percent of the congregation (882 in favor, 19 against) voted in favor of transferring its membership during a special business meeting held on July 31, the church announced on Saturday.

Thanksgiving Church had been an active part of the Korean District Council in the Assemblies of God, and in the 35 years of the Korean District Council's history, Thanksgiving Church hosted three of the district council's annual meetings. The senior pastor of Thanksgiving Church Rev. Young Gil Kim had also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District Council for two terms.

Rev. Kim said he hopes that the younger generation in Thanksgiving Church would be able to "receive the spiritual inheritance" of the Assemblies of God denomination, and said that the church will "continue to share a brotherly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District Council."

Thanksgiving Church has submitted a transfer request to the Southern California District. Out of the 67 District Councils in the Assemblies of God, two of them are for the Korean community, including the Korean District Council and the Second Korean District Council.

Interview with Pastor Ray Chang: 'Why Not Reach More for the Gospel?'

BY RACHAEL LEE

"If heaven is going to be a community with all nations, all tribes, all people, then why can't the church be that community? Why can't we reflect what heaven is going to be like?"

These are some of the questions that Pastor Ray Chang had pondered when he first felt compelled to plant a multiethnic church. Today, Chang is the lead pastor of Ambassador Church, located in Brea, CA, a congregation of some 500 people, who are Asian, White, Latino, and African American.

But Chang's ministry career wasn't in a multiethnic context from the beginning. Prior to launching Ambassador Church, Chang has been both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 context and a primarily White church context. He says that it was while serving in a homogeneous context that he felt convicted to step out into the multiethnic one. It started with a conversation he had with a young adult member of an English-speaking, Korean American congregation he was leading at a Korean immigrant church.

"I asked him, 'Hey, why don't you bring one of your co-workers to church?' And he said to me, 'Pastor Ray, I can't. This is a Korean American church. They'll feel uncomfortable,'" Chang recalled. "He was genuinely concerned that the people he would invite would not fit in. And it really struck me."

The thought of having a church in which members would feel free to invite anyone and everyone around them to church was the initial spark that compelled Chang to plant Ambassador Bible Church in Virginia in 1997, and then to plant Ambassador Church in California in 2003. Over the years, Chang says that he has discovered even more advantages to being

a part of a multiethnic congregation. For instance, he said, being a part of a multiethnic congregation increases possibilities for mission work.

"Here's how a lot of churches do missions," Chang said. "They take their youth groups and college groups. They go to Peru or they go to Mexico for a few days. They go to China or Thailand. But there's very little connection."

"Instead of just going to Thailand, why not reach Thai people here, and take them with you to Thailand? Why only think about missions overseas?" said Chang. "That's the advantage of being in a multiethnic church. You have opportunities to do greater evangelism and broader mission work."

But doesn't being a part of a multiethnic church diminish each individual's ethnic culture? Chang said that that's a common counterargument to having a multiethnic congregation, but that he has experienced otherwise. In some ways, the multiethnic context even "enhances" each culture, said Chang, as being surrounded by people of different cultures allows each individual to appreciate his or her own ethnic culture even more, while also appreciating that of others.

"The Korean American members, they still listen to K-Pop, they still go to Korean restaurants," he said as an example. "But now, they're also taking their Hispanic friends from church with them, and those Hispanic friends are also taking the Korean members to Hispanic restaurants."

"In that way, we're constantly learning from each other," said Chang.

Most importantly, a multiethnic congregation serves as a way to reach more people for the gospel.

"For me, planting a multiethnic church had nothing to do with political correctness," he explained.

"It had everything to do with the gospel. What is the ultimate expression of the kingdom of God? Revelations 5 and 7 says that it will be all nations, all tribes, all people."

"We could limit ourselves by just reaching Korean Americans, but God has called us to be in a nation where there's so much diversity. Why not reach everybody for the gospel?"

Chang clarified that he believes all types of churches are necessary, and that he isn't advocating for all churches to become multiethnic. But he also saw the need for more Korean American pastors to venture out to lead or plant multiethnic churches.

"We need all types of churches for all people," he said. "We need a first gen church. We need a church for both first and second gen. We need a church just for second gen, and we need a multiethnic church. We need all of these churches. But the majority are stuck in the middle or stuck in the first."

Chang says that he has "never met a pastor who said he doesn't want to have a multiethnic church." Still, many Korean American pastors are leading congregations that are primarily Korean or Asian American, Chang said. The key to actually realizing a multiethnic congregation is intentionality.

"If you think about a river, it naturally flows downstream. The natural flow of ministry and of life is that we tend to be homogeneous, and we tend to value comfort and security. That's human nature; that's the downstream of life," Chang said.

There are several steps church leaders must take to "go upstream," and to be intentional towards building a multiethnic church, Chang said. First, they must "state the vision." Ambassador Church, for example, has the three core parts of its vision stated in its logo, website,



(Photo courtesy of Ray Chang)

pamphlets, and programs: "Multi-ethnic. Missional. Multiplying."

"If you don't state it, the natural downstream is that people are going to bring people who are just like themselves," Chang said.

Second, they must "staff the vision." Though Ambassador Church started out with five Korean American staff, as some began to leave to plant their own churches, Chang and the remaining leaders made sure to bring on people of other ethnic groups.

Third, they must "stage the vision." "If you want to be a diverse church but everyone on stage is Korean American, you're not going to have a multiethnic church," Chang explained.

There's also the problem of the congregation members just hanging out with people of the same ethnic group. Interacting across cultural and ethnic lines must start with the leadership, said Chang.

"If we don't intentionally have relationships in the leadership with people that are diverse, then you can't expect the congregation to have those relationships," he said. "We have to model it -- it's the best way to teach our people how to be a multiethnic church."

"And getting along across cultural lines is not just about this superficial getting along. It's about saying, our identity is in Christ first. We're family. To be a multiethnic church, you have to think of it as family."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4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 AM & 12:30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om



Most Americans Have Heard Pastors Speak About Political Issues from Pulpit, Says Study

A new Pew Research survey found that a majority of Americans have heard pastors speak about political issues from the pulpit.

About 64 percent of churchgoers said that they heard their pastors speak about at least one of the political issues mentioned in the Pew survey, such as religious freedom, homosexuality, abortion, immigration, environmental issues, and economic inequality.

Among those who heard about religious freedom, 32 percent reported their pastors defended religious liberty, and only 2 percent said their pastor did not believe it was under attack.

About 22 percent said their church leaders were against abortion, and only 3 percent supported abortions.

More churches (19 percent) held the view that Christians need to welcome and support immigrants, and only 4

percent advocated for stricter immigration laws.

Some 20 percent said that their pastors were against homosexuality, while 12 said their leaders encouraged acceptance.

Meanwhile, a lesser proportion reported that pastors spoke about political candidates. About 14 percent of Christians who attended religious services in spring and early summer said that their pastors did speak about presidential nominees, and more spoke out in favor of Hillary Clinton. Some 9 percent said that the clergy spoke in support of a candidate. About 6 percent spoke in favor of Hillary Clinton while 1 percent did so for Donald Trump.

Around 11 percent of the churchgoers said that religious leaders have opposed a candidate, 7 percent of whom

spoke against Trump and 4 percent against Clinton. Some 6 percent heard both opposition and support for the two candidates.

About 3 percent of white evangelical Protestant pastors spoke against Trump and only 2 percent voiced support for him.

"This is the first time we've asked these specific questions in this way," Jessica Hamar Martinez, a senior researcher at the Pew Research Center, was quoted as saying by The New York Times.

"We found that many people are hearing at least a little bit about politics from their clergy and religious leaders in their places of worship," she said. "But at the same time, it's a much smaller share who are hearing clergy say something specifically about a presidential candidate."

More Americans Found to Be in Favor of Legalizing Marijuana, Says Barna Study

The American public seems to hold a more positive view on the legalization of recreational marijuana, according to a new Barna Group study.

The study found that about 40 percent of Americans now believe that recreational drugs like marijuana should be legalized, and the restrictions should only be applicable to hard drugs. A relatively smaller proportion of people (32 percent) says that all drugs should be illegal. Only about 13 percent of American adults think all drugs can be made legal but will need to be regulated.

The younger generation in particular has less inhibitions about legalizing drugs. Only about 29 percent of Millennials say that all drugs need to be made illegal. More Elders, on the other hand, agree that drugs should be illegal. About

43 percent of Gen-Xers and 42 percent of Millennials favored legalization of recreational drugs, while a lesser number of Boomers (39 percent) and Elders (24 percent) held this view.

"The general population though -- particularly younger Americans -- have grown weary of the war on drugs and the pressures it has placed on law enforcement, prisons and tax dollars," said Roxanne Stone, editor in chief of Barna and director of the study.

Evangelicals hold the most conservative view of accessibility to drugs. As many as 66 percent of evangelicals say that all drugs should be illegal, and 43 percent of practicing Christians have the same opinion on average. Atheists were most likely to endorse legalization of drugs, as only 17 percent voted

they are against it. Some 16 percent of evangelicals and 34 percent of practicing Christians said that recreational drugs should be legalized. About 49 percent of atheists said the same.

"Christians have a long history of weighing the morality of alcohol and drug use," Stone noted. "Those debates will likely continue -- and more Christians, especially younger ones, will probably begin to see marijuana as an acceptable pastime."

In November this year, nine states will vote on the issue of legalization of marijuana. Ballots will be cast in California, Massachusetts, Arizona, Nevada, and Maine to decide if it can be used for recreation, while Florida, Montana, Missouri, and Arkansas will vote on its use for medical purposes.

Two Million in Aleppo Left Without Running Water and Electricity, Says UN Report

About 2 million residents in Aleppo are without running water and electricity, as the incessant fighting in the city has damaged infrastructure including electrical lines and water pumps, the United Nations said in a press release.

UN Emergency Relief Coordinator Stephen O'Brien urged the fighting groups to allow for a ceasefire or weekly 48-hour humanitarian pause for humanitarian aid to be delivered and for infrastructure to be repaired.

"We have supplies ready to roll: food rations, hospital supplies, ambulances, fuel for generators, water supplies and more," said O'Brien. "We can deliver these within 24 to 48 hours if we have safe access."

A statement released by the UN said that the organization was "extremely concerned" for the millions of civilians stuck in the city besieged by war.

"The UN stands ready to assist the civilian population of Aleppo, a city now united in its suffering. At a minimum, the UN requires a full-fledged ceasefire or weekly 48-hour humanitarian pauses to reach the millions of people in need throughout Aleppo and replenish the food and medicine stocks, which are running dangerously low," it said.

The ongoing fighting can take a significant toll on young children, who are vulnerable to water-borne diseases,



Wreckage from a barrel bomb in Aleppo, Syria. (Photo: Freedom House / Flickr / CC)

according to the UN Children's Fund (UNICEF).

"In the eastern parts of Aleppo up to 300,000 people -- over a third of them are children -- are relying on water from wells which are potentially contaminated by fecal matter and unsafe to drink," said UNICEF.

The delivery of medical supplies to the eastern part of Aleppo city, which is under the control of rebels, was interrupted due to the fighting, and stocks have not been replenished since July 7.

The hospitals are facing severe shortages of health care workers and facilities, even as more war-related injury patients are admitted to hospitals.

Last month 10 attacks were carried out on hospitals. The city health authorities told WHO that 13 out of 28 health care centers, and 8 out of 10 hospitals are now out of service or partially functional.

O'Brien called for the restoration of humanitarian access into the city.

"Fighting must stop everywhere. People are suffering across the country, in Menbij, eastern Ghouta, Dara'a, to name but a few. Politics must be put aside," said O'Brien. "We must do our duty as fellow human beings, through the privilege we have of serving people under the United Nations flag, to help all those who are now in dire straits."

Islamic State Kidnaps 3,000 Internally Displaced People Fleeing Village Near Mosul

The Islamic State captured up to 3,000 internally displaced Iraqis who were fleeing from a village near the city of Mosul, which is still under ISIS control.

The militants executed about 12 people, and burned six others, according to the Iraqi Observatory for Human Rights.

An earlier report by the observatory said that around 1,900 people were seized by over 100 ISIS fighters while fleeing Hawija district in Kirkuk province.

The UN refugee agency received a report that the number of fleeing people is up to 3,000, but the officials have yet to verify the account.

The kidnapped civilians included women and children as well, who were attempting to escape on foot to safer areas on August 4.

An eyewitness told the Iraqi Obser-

vatory that "a number of women and children died [in Hawija] because of the lack of food, medicine, water, and electricity."

The agency asked the Iraqi government and the United Nations "to end the crisis in the area and to help rid its residents from the oppression of ISIS while ensuring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residents."

"Many of the IDPs die and get wounded by stepping on Da'esh [ISIS] bombs [improvised explosive devices] while escaping from Hawija," a source told Kurdistan24.

Deputy governor of Kirkuk province, Rakan Saeed, asked Prime Minister Haider al-Abadi to rescue the captured civilians, but the government did not comment on the crisis.

The UN refugee agency is building two camps in the northeast and north-

west areas of Mosul, anticipating the arrival of thousands of people escaping the city.

ISIS captured large parts of Iraq and Syria in 2014, and kidnapped thousands of women and children to be used as slaves.

Many towns and cities have been taken back from the self-proclaimed caliphate (which is called by some as Daesh), but it still retains Mosul in Iraq and Raqqa in Syria. The IS has used civilians attempting to flee their territory as human shields against battle fire with opponents in the past.

The UN estimates that the struggle to take back seized lands from the militant organization has displaced over 3.4 million Iraqis. The battle to retake Mosul could displace about 1 million more civilians, according to the Red Cross.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fc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a.org

차종에 따라
72개월까지
0%이자가가능

PH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SUMMER 특별SALE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7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2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SONATA SE

Lease It For **\$8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2,8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NEW
2016 HYUNDAI
TUCSON SE FWD

Lease It For **\$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115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7 HYUNDAI
SANTA FE SPORTS 2.4 FWD

Lease It For **\$11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470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250 Lease Cash, \$75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